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MAY 3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5 1983년 5월30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May 30,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사복경찰들 자택으로 난입

김영삼씨 병원으로 강제 이송

단식6일째 "민주화위해 목숨잃을 각오"

병원서의 모든치료도 거부

〈서울-UPI〉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중이던 김영삼전신민당총재가 25일 사복경찰들에 의해 강체이송되었다.

김씨의 부인 손명순씨는 『수십명의 사복경찰관들이 집으로 난입 김씨를 강제로 앰블런스에 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2명의 김씨비서와 운전사가 이날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고 손씨는 덧붙였다.

김영삼씨는 이날로 단식6일째를 맞고 있었으며 그동안 체중이 15파운드나 줄었다고 한다.

『이번 단식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것을 알지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내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소식통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된 김영삼씨는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식통은 지난18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김씨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주사치료도 거절하며 음식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부인 손씨에 의하면 25일 상오 약30명의 경찰들이 자택에 들어와 약1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인후 김씨를 앰블런스에 태워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김 영 삼씨

김씨생명안전 정부관심촉구

김대중씨 성명

김영삼전신민당총재의 민주회복을 위한 단식투쟁에 대하여 24일 김대중씨는 성명을 발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도록 촉구했다.

김대중씨는 이날 『김영삼씨의 단식1주일이 되도록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는 김영삼씨의 생명의 안전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토교민 10명 참석

본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토론토지역 교민 10명이 6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토론토 총영사관이 27일 발표했다.

평통자문위원 자격으로 이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는 이영재(신규), 조영호, 전택균, 이영현, 노윤거, 함의현, 최충식, 원영신, 서준경(신규), 이근우(신규)씨등이다.

전두환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통자문위는 81년6월 조직되었으며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 10,0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회 모임인 이번 집회에는 남북미·유럽·일본·동남아등지의 839명을 포함, 1만명이상의 평통위원들이 모여 "민주적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국내외에 과시"하게 된다.

토론토총영사관 관할구역내에는 6월1일부로 신규임명된 6명을 포함, 총23명의 평통위원이 있다.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토론토지역 평통위원은 윤여화·조한철·장순채·박주삼·차선겸·이성인·김태진·박종수(위니펙)·이상호·강신봉·문남귀(신규)·조병역(신규)·최덕준씨등이다.

—사 고—

심의실 창설

기사·광고 불평취급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평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이석현 전 편집장이 담당하는 심의실을 설립했읍니다.

심의실은 기사뿐 아니라 광고문에 대한 광고자의 불평도 최종적으로 취급합니다.

심의실 전화는 회사전화번호 533-236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침략도 저지"

레이건, 전대통령에게 친서

(서울27일=연합) 로날드·레이건 미대통령은 리차드·워커 주한미대사를 통해 26일 전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침략도 저지한다는 한국의 결의에 뜻을 같이 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4월14일 윤승민국방장관을 통해 전달한 전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이 친서에서 레이건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은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윤국방장관과 와인버거미국방장관간에 열린 지난 제15차 한미안보협의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남자없이도 아기를 만들수있다"

영국의료진, 무정난에서 태아생산성공

(런던) 일단의 영국과학자들이 정자와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무정란에서 8개의 세포조직을 가진 태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26일 런던의 과학지 「네이쳐(Nature)」지는 영국의학연구위원회와 에딘버러대학의 과학자들이 3일간의 실험결과 태아인공생산에 성공했으며 일부과학자들은 앞으로는 남성 없이도 인간이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실험을 주도한 다산생물연구소소장 데니스·링컨박사는 장차 2개의 여성난자로 태아 1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인간의 태아는 남성·여성 염색체 각 23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생산된 태아는 22개의 여성염색체만 가졌을 뿐 남성염색체는 한개도 없다.

시험생산된 태아는 의학윤리규정상의 제한과 원래 실험의 목표가 초기단계 연구에 있었다는 점에서 파괴시켰다고 동 연구단은 발표했다.

인류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멤버중의 하나인 생물학자 로버트·에드워즈씨는 인간의 초기발육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밤 월터·홀에서 열린 한국맹인후원 자선음악회에서 열창하는 김자경교수, 왼쪽은 반주자 왕현옥씨(기사는 2면에)

—〈오늘의 시세〉—

CN$1.00 = 626.73원
CN$1.00 = US81.20센트
금(런던) = $541.90
은(토론토) = $16.55/oz.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중공 인적교류 진행

민간여객기 납치사건 이전부터

(서울)중공 민간여객기 납치사건 이전부터 한국과 중공의 인적교류가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사실이 서울의 외교소식통및 민간소식통에서 확인되었다.

아직 양국정부가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두 나라의 인적교류는 여객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활발해질 가능성이 짙다.

외교소식통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4월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실시된 재미 중국인(중공계)학자 원효원여사의 한국방문과, 역시 재미한국인 학자 장병혜여사의 중공방문이다. 물론 두 여성모두 미국에 살고 있으나, 각각 본국정부와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다.

원여사는 중공의 문자개혁 학자로서 정치적으로 중요인물은 아니나, 일부에서는 "고 주은래수상의 친척"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여사는 한때 총리를 지낸 고 장택상씨의 따님으로 미국국적을 가지고 현재 뉴저지주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한편, 모국의 해외동포문제위원회의 정규회원이 되어 있다.

원여사는 한국의 재벌기업을 방문했을때, "중국(중공)과 한국은 경제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으며, 장여사는 6월중에 한국에 가서 중공연구가들에게 방중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한국 무역진흥공사 주최 「제1회 서울무역견본시장」때 중공의 무역관계자 수명이 홍콩 경유, 한국을 방문하여 견본시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작년 서울서 열린 「국제해양법학회총회」에는 미국 유학중인 2명의 중공학자가 참석했음이 확인됐다.

◁금주의 행사▷

—1983년 5월30일(월)~6월5일(일)—

◆6월1일(수) 낮12시 한맘골프대회
곳 : 글렌·이글 골프클럽
연락처 : 751-9236, 282-5387

◆4일(토) 상오9시30분 연세골프대회
곳 : 리치몬드힐 골프클럽
연락처 : 445-6704(이 갑)

◆4일(토) 하오8시 말세영화상영
영화제목 「Years of the Beast」
곳 : 세예루살렘교회
연락처 : 429-2685, 1430

◆4일(토) 상오11시 이화여고 야유회
곳 : 다운스뷰·Dells Park
연락처 : 1-895-7594(김 양자)

◆6일(일) 하오4시 박하규 목사 취임예배
곳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ne Ave, Willowdale)
연락처 : 488-4141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R 622 5147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란콤화장품
오메가시계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소재업체
3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축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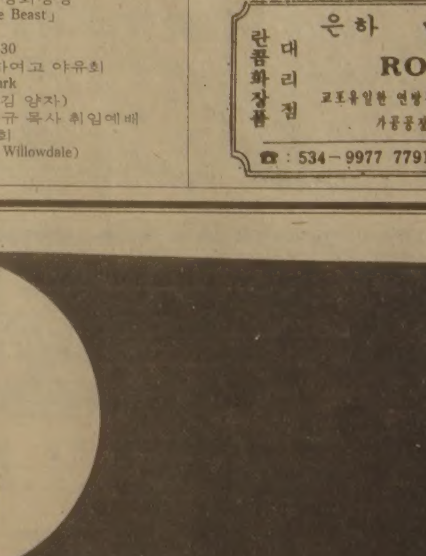
정 원
KOREAN GARDEN
신장개업 6월6일(월)

나이아가라폭포에서
한정식을 즐기십시오!

메 뉴
불갈비, 불고기
생선회, 회덮밥등
(정종, 맥주)

나이아가라에 오시면 저희
집에 한번 들려보십시요
시원한 폭포수와 한국의
맛을 함께 보십시오.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1-354-3800 이중균



67세불구 노익장 과시

자선음악회 갖은 소프라노 김자경

지난 30여년간 한국 오페라 발전과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음악대학에서 후진양성에 전념해온 소프라노 김자경교수는 26일밤 토론토교민들을 위해 성가와 한국가곡을 열창, 노익장을 과시 했다.

김교수는 이날밤 8시20분부터 10시까지 1시간 반동안 토론토대학교 월터·홀에서 30여명의 캐네디언을 포함, 450여 청중에게 김주환곡 「내 선한 목자」등 성가6곡과 금수현곡 「그네」, 김동진곡 「가고파」, 현제명곡 「고향생각」등 우리 귀에 익은 한국가곡 12곡을 불렀다.

정열이 넘쳐보이는 67세의 김여사는 모두 18곡을 부른다음 청중들의 열렬한 앵콜요청을 받아들여 오페라 「호박」중에서 「머슴과 할머니 대화」와 「봉선화」를 선사했다.

모국맹인 개안수술비 모금을 위해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자선음악회에서 김여사는 아름다운 한복을 3차례나 갈아입고 나와 특히 캐네디언들로 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피아노반주는 금년도 이화여대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2년전부터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연예인교회」 반주자로 활약해온 왕현옥양(23세)이 맡았다.

공연이 끝난뒤 김교수는 "청중의 수준이 높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역력해 마음놓고 노래부를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이번공연으로 30여명의 모국맹인이 눈을 뜨게 될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고 울먹였다.

김교수의 이화여대 제자로 토론토에 활약하는 소프라노 이주연씨는 김교수의 이번공연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숙미를 느꼈다"면서, "목소리를 잘 간직하기만 하면 노령에도 아름다운 음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맹인후원회에서 근무하는 마가렛·메테슨씨는 한국의상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유익한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공연이 끝난뒤 이화대학토론토동창회(회장 이주연)는 다과를 준비, 금년2월에 은퇴한 김교수를 환영하는 리셉숀을 공연장 로비에서 가졌다.

한인맹인후원회 김홍회장에 따르면 이날공연장에서 개안수술비로 1,800달러를 모금했으며, 이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의 700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제연합 환경주간

6월5일부터 11일간

오는 6월5일부터 11일까지는 국제연합환경주간(United Nations Environment Week)으로 국가간에 상호 적합한 환경조성과 세계적인 공해추방을 위한 협력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세계각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한편 온타리오환경기구에서도 지역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11일에는 「우리의 환경보존(Save Our Environment)」라는 주제로 토론토 시내에서 환경주간축제를 실시한다.

오전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열릴 이날의 행사에는 40여개의 단체에서 출품한 공해추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시가 있으며 특별연사로 온타리오주 신민당당수 밥·레이, 자유당수 데빈·피터슨, 환경장관 키드·노턴등이 나온다.

또한 환경캠페인을 위한 음악제, 공해방지계몽영화 「Raiders of the Lost Breath」등이 시청내에서 열린다.

이날 시내 각국민학교 아동들이 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조각을 전시해 공해문제를 고발하고 작문을 통해 경각심도 높인다.

그외에도 자연산책(Nature Walk), 공해반대아트쇼등이 열린다.

비지니스 수선탑

실크·스크린 전문

『영·그래픽스』

실크·스크린및 아트·워크 전문의 영·그래픽회사가 1일 1181 Finch Ave. W. #12(킬·스트릿 동쪽)에서 개업한다.

캐나다 이민이래 10여년간, 한국부터 통산 30여년 경험을 가진 정용필씨(한국볼링협회장)가 설립하는 이 회사는 포스터, 레이블, 각종 스티커, 비닐·백 및 유리인쇄등을 한다.

특히 단체유니폼, 체육복, T셔츠, 타월에 그림을 그려넣거나 이름을 인쇄한다. 상패의 프레이트도 만든다.

정사장은 광고디자인도 취급한다고 밝혔다.
전화는 661-2838, 3114.

◆정용필씨

"금년여름 덥지않다"

캐나다관상대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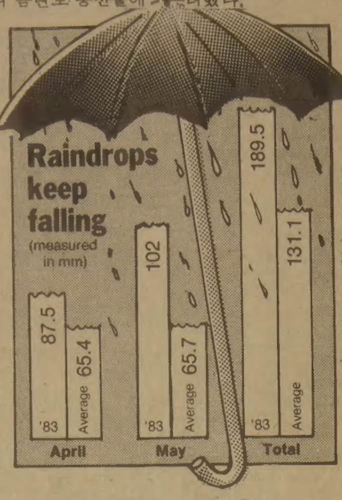
최근 세계는 이상기온과 일기의 급변등으로 폭풍, 홍수, 지진, 가뭄등의 이변이 속출하여 인명, 농작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캐나다도 근래 불순한 일기가 계속, 기록상으로는 9년만에 최악의 봄을 맞고 있다.

기상학자인 모리스·캐스틴씨는 "금년의 기상도는 예년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며 금년 여름도 그다지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관상대의 브라이언·스미스씨는 지난 5개월간의 기온이 평균기온보다 2도이상 낮고 호수의 온도는 훨씬 떨어졌으며 5월중 강우량은 예년평균보다 오히려 높아 2배에 가까운 10.2 센티미터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산부 대변인이 스넬러씨도 모든 농작물의 봄수확도 2주정도 뒤지고 있으며 모종, 묘목도 늦어져 금년도 농산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금년봄 「온」주의 강우량

『제다이의 귀환』열풍

사상 최대 관객동원 예상

조지·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의 두번째 후속물인 「제다이의 귀환(Return of the Jedi)」이 25일부터 영과 블루어에 있는 유니버시티등 메트로·토론토의 5개 극장에서 일제 개봉됐다.

영화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작품중의 하나로 예상되는 「제다이의 귀환」은 효과방면의 귀재 루카스감독이 스타·워즈, The Empire Strikes Back에 이어 내놓은 우주공상과학영화로 총제작비는 3,250만달러.

토론토에서는 컴버랜드·포(Cumberland & Avenue Rd.), 세다브레(Lawrence & Markham, 438-1291), 타운·센터(Yonge N. & Steeles, 222-1196), 러니미드 I (Bloor & Runnymede, 769-2709), 및 유니버시티(Bloor W. & Bay, 924-2581)에서 상영중이다.

관람료는 성인 $5.50, 청소년(14세~17세) $5.00, 어린이(13세이하) $2.50, 노인 $2.00.

개봉첫날 이영화의 공급을 맡은 패이머스·플레이어즈는 전화예약을 받지않는 컴버랜드·포의 라-리저브 극장의 경우 예매만으로 24,000달러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이 극장이 한 영화에서 올린 예매수익기록의 5배를 기록했다고 즐거운 비명을 울렸다.

70년대에 미국영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조지·루카스감독은 영화라는 표현양식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줄 아는 감독중의 하나로 그가 쓰는 음향, 카메라의 기술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롤라·코스타를 타는 기분이 되게 한다."는 평을 줄 만큼 화면에 몰입하게 한다.

수억만년전 존재했던 우주공간의 공상의 우주국 포뮬라(Formula)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우주와의 전쟁에 얽힌 스토리로 정의와 사랑, 모험과 도전이 넘치는 「제다이의 귀환」은 전편인 스타워즈, 엠파이어·스트라익스·백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루크스카이워커, 프린세스 레아, 한솔로, 다크·베이더, 요다, 추바카, 로봇 C-3PO, R2-D2등은 어린이들의 우상이며 2년전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다.

우주를 제패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대항하는 지구인들의 활약은 어린이들의 꿈과 매력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제다이의 귀환」의 등장인물 요다가 시사회에 참석한 토론토 의 팬 에디군을 안고 있다.

교민가게 강도침입

인명피해없이 현금뺏겨

4286 킹스톤 로드(Kingston Rd.)의 더블·디·버라이어티 스토어에 손님을 가장한 칼든 강도가 교민가게에 침입, 현금을 강탈, 도주했다.

지난 25일 하오3시경 상점직원 석·리(29)씨가 캐쉬어를 보고 있는 동안 남자손님이 담배를 산 뒤 칼을 내밀고 위협, 리씨가 돈을 내놓자 옆의 아파트건물쪽으로 사라졌다고 경찰이 밝혔다.

본사 송광호국장 1주일간 LA출장

본 토론토한국일보의 송광호 광고국장은 로스앤젤레스 미주본사와의 업무협의차 28일 출발했읍니다.

송국장은 1주일간 LA에 머물면서 광고업무를 비롯, 신문사 운영전반에 걸쳐 의견교환을 가집니다.

송국장의 출장중 본사 광고업무는 광고국 최귀암, 이춘호, 이경숙씨등 3인에 의해 차질 없이 운영됩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2>

누가 惡魔인가 ③

『그런건 아무래도좋아요. 난 물건이 귀찮으니까. 그렇지만 물건을 인계하기전에 당신들이 지켜줘야할일이있어요. 알고있겠지?』

『물론 알고있지요. 잔금을 달라는 말아닙니까?』

『잔금1백만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입금시키고 내여자를 즉시 풀어줘요. 모든것이 확인되면 물건을 당신들한테 넘기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물건을 받기도전에 우리가 먼저약속을 지킬수는 없읍니다. 만일약속을 지켰다가 선생께서 물건을 우리한테 넘기지않으면 우리는어떻게합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우리한테 물건을넘겨주십시오. 물건을 확인하고나면 즉시 잔금을 지불하고 여자를 보내드리겠읍니다.』

『그럴수는 없어!』

제5의 사나이가 노한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약속을지켜! 나는 물릴없이 약속을 지킨다!』

『우리는 눈에보이는 사실만을 믿지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주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지키겠읍니다.』

『나도 당신들을 믿지않아!』

『서로 믿지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

제5의 사나이는 침묵했다.

『정그렇다면 맞바꾸는게 어떻까요?』

『맞바꿔?』

그가 되물었다.

『네, 맞바꾸는게 좋지않을까요? 서로 믿을수 없다면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 싫은데…』

『그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을 위해서는 할수없는일 아닙니까. 싫어도 해야하는게 우리 입장 아닙니까.』

제5의 사나이는 한참동안 침묵했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좋아요. 장소와 시간은 내가정하겠다.』

『네, 좋습니다. 언제 어디로 할까요?』

『다시 연락하겠소.』

『빨리 해야합니다. 경찰이 총동원되어 선생을 찾고있으니까…』

전화가 찰칵하고 끊어졌다.

남작코의 사나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정보 105본부로 들어와

한편 105본부로는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정보는 빠짐없이 센터로 들어와 거기서 분류 검토되고 있었다.

노파를 감시하러 내려간 팀으로부터는 그녀가 집안에 틀어박혀있으며 이상한 동정 같은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보내져왔다. 센터는 계속 감시하라는 지시를내렸다.

화교를 감시하는 수사요원들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뒤늦게 들어왔다.

『마약 전과가 있는 화교 3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사라졌다. 찌금 행방을 조사중임.』

센터는 계속 조사보고하라고 지시했다.

朴 男·그림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SUNNYSIDE SUPERMARKET
〈한국식품점이 또하나 생겼읍니다.〉
양지식품

〈인 사 말 씀〉
여러분께서 자주 다니시는 양지바른 길목에 새로운 한국식품점을 마련했읍니다.
한국식품및 기타 동양식품을 고루 갖추고 친절과 성의로써 여러분의 식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는 6월10일(금) 개업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단한 리셉션을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태·안경애 올림
1738 LAWRENCE AVE. E.
(at 빅토리아·팍)
☎759-9331
입맛을 돋구는 고향의 싱싱한 맛은 역시 양지식품에서!
개업일 : 6월10일(금)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돈 쓰는 法

早期교육이 좋다

美"어릴때부터 관리능력 기르자"내세워

숫자터득할 3~4살 부터 모범 經濟생활 기틀닦아

어린이들에게 돈을 알게하는 훈련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이는 당장 가정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뿐더러 훗날 인생살이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재정상담전문 기관들이 외치는 새 주장이다. 한말로 꼬마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게하고 규모있게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모범가장이자 건실한 사회인이 될수있다는 것이다. 조기교육의 교과에 「돈의 관리」도 필수과목이라는 논리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되도록 돈을 멀리 해야된다는 종래의 전통과 정반대 입장이며 유아교육면에서까지 배금사상을 강조한점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조사결과로 나타난 결론이 다보니 일선교육계조차 상당한 동조를 보이고 있다는것.

더욱 관계전문가들은 이나 과자를 마음대로 사먹게하면 화폐의 교환가치와 상품마다 다른 가격을 비교하게된다고.

5~6세가 되면 용돈을 주되 2~3개의 특정물품을 선택케함으로써, 스스로 돈의 용도를 제한, 화폐사용에 따른 짜임새를 갖추려든다.

이런 예비훈련을 거쳐 국민학교에 입학할때쯤이면 돈이 절대가치를 지닌것이 아니고 교환수단으로써 효용도를 인식, 경제생활의 기초이해를 터득할수 있게된다.

12~13세때면 정해진 어린이들에 대한 화폐훈련이 평소 생활교육으로 끊임없이 지속돼야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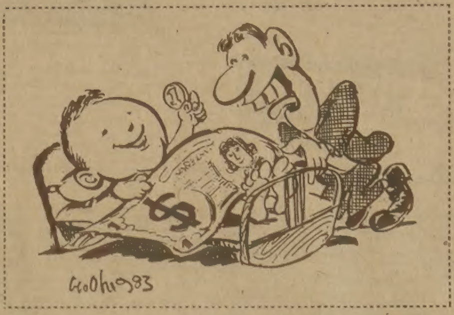
최초의 훈련시기는 3~4세에 들어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할때가 출발선.

동전몇닢을 주고 사탕용돈을 줘 자신의 소비생활을 줄이게한다. 학용품을 사고 음악회비를 충당하며 내일의 지출에 대비해 저축에 나설수도 있다.

이맘때부터 주의할점은 용돈을 처벌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것이다. 흔히 용돈을 줄때 자식들의 행동을 규제하려드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결과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격형성에 치명타가 될수있다고 한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돈의 쓰임새가 늘어나게되고 자연히 돈을 아껴쓰며 나아가 돈을 자체조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대략 16세전후에 가장 소유욕망이 강해져 무엇이나 닥치는대로 품안에 얻고싶어진다. 바로 이 시기가 아르바이트와 저축을 유도하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우선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가계를 꾸리고 있으며 가족각자가 재정면에서 얼마만한 부담을 지고있는가를 이해시켜준다.

감수성이 강한 틴에이저들은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되며 학비나 용돈조달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된다.

아르바이트를 원할경우 일단은 격려하되 부모들과 사전에 상담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족이란 한굴레의 공동체이며 경제적 수입보다는 가족모두 노력하는 품성이 중요하다는점을 심어주기위해서다.

이단계에 들면 부모들이 먼저 가족들에게 재정문제를 털어놓고 자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것도 바람직하다.

자녀들이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는것보다 더 현실적인 교육효과가 없기때문.

일찍부터 돈에대한 훈련이 이뤄진 자녀들이면 절대로 용기를 잃지않으며 오히려 강한 의욕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게된다. 즉 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돈을 두렵게 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됐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유머와 웃음

天然의 진통제역할

호흡增大·血中 산소량높여 맛사지 效果로 老衰 방지

웃고나면 어딘지 모르게 후련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경험하는일.

웃음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우리가 마음껏 웃으면 호흡작용의 주요근육인 횡격막이 충분한 운동을 하게돼 혈액중의 산소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거나 허약체질로 운동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을 준다.

농담이나 코미디·이야기등을 듣기 시작할때 우리의 근육은 이야기의 절정을 기대하고 긴장한다. 클라이맥스가 지나면 우리의 흉곽과 복강·안면근육은 격심한 운동을 하게된다.

이같이 클라이맥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발작으로 웃게될때는 팔과 다리까지 동원한다.

한차례 웃음이 지나가고나면 맥박은 정상이하로 떨어지고 골격근육은 크게 이완된다. 즉 우리가 웃는동안 우리의 몸은 「내부마사지」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유머와 웃음은 또 천연의 진통제역할도 한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기대감을 변화시키고 천연진통제인 엔도핀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머는 관절염·통풍부상으로 인한 염증에 따르는 고통을 직접 말살하는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웃음은 뇌를 자극해서 각성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을 분비케 하고 이 호르몬은 엔도핀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하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감각은 「기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맥박의 증가·피부온도와 혈압의 상승으로 알 수 있다.

웃음이 가라앉으면 긴장이 풀어져 유머의 자극이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덜 긴장하게 된다.

이같은 긴장완화상태는 약45분간 계속되는것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웃음의 강도가 클수록 긴장완화의 폭도 커지고 지속되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

근육을 갑자기 이완시키는 능력으로 볼때 웃음은 스트레스의 치료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육이 푹 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심걱정을 잊는다. 근심이 쌓일 여지를 없애주는 유머감각과 생활감각은 우울증을 없앤다.

긴장으로 고통을 받을때는 우선 명상을 통해 긴장을 풀거나 수영이나 달리기·테니스등 격렬한 운동을 해보는것도 좋고 무엇보다 실컷 웃는것이 가장 손쉬운 처방이다.

유머감각을 가진다는것은 커다란 자산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ROLEX 로렉스 14금 여자용 수동식 손목시계 특가 대매출 ☆결혼하시는 분께 최적의 기회

현명한 소비자의 단골보석상 은하는 고급 보석상의 이미지와 더불어 가격도 절대 저렴하게 판매하며, 품질을 절대 보증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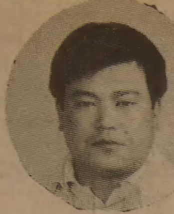
※은하에서 구입된 다이아몬드 반지는 언제나 들리시면 새것과 같이 CLEAN 해 드립니다.

GOLDFINGER JEWELLERY CO.
620A BLOOR ST. W. TOR.
☎534-9977/7791

〈유인형 수필선〉

돈 벼 락

유인형(수필가)



◆유인형씨

"돈벼락 좀 떨어져라!"

보통 답답한게 아니다. 돈을 빌려주고 살짝 살짝 이자를 받던 그 은행까지 파산하는 마당이다.

큰공장부터 문을 닫더니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취직난」이 더욱 시끄럽게 되었다.

「본전치기야!」

현상유지만 해나가는 업체는 성공인 셈이다.

그렇게 흔하게 쓰던 휴지도 아끼고, 담배를 사면 그냥주던 성냥도 없어졌다. 가로등까지도 대낮처럼 밝다못해 때때로 대낮에도 켜두더니 그 게으름이 사라졌다. 흥청거릴때엔 잘 몰랐는데, 불황의 터널이 길어지니까 술집과 교회만 늘어난다. 은행 몰게지를 못갚아 그대로 사람만 빠져나오는 유령타운도 생겨난다. 몇개월만 일하다가 휴업수당을 타는 맛으로 입금좋은 직장만 골라 다녔던게 삼년전의 일이다.

굶으려해도 못굶도록 이런 저런 복지금을 손에 쥐어주던 알버타가 점점 밝아진다.

한때는 모든 분야에 인색치가 않아서 「집들이」를 하느라고 겹치기로 쫓아 다니었다. 밤새도록 "딩가딩 딩가딩"에다, 해장국까지 나왔다. 나중에는 나폴레옹 꼬냑도 눈에 차지 않았다.

「우거지국 좀 드세요」

구하기 어려운 선지를 썰어넣고, 우거지, 파등을 푸욱 끓여 내놓은 집도 있었다.

「다음 주말은 누가 집들이요?」

「이양반이, 스케쥴이 바쁘셔!」

「누구집은 열다섯가지 반찬이 나왔잖아」

「그걸 세어봤어요?」

보글거리는 두부전골에다 생굴의 양념간장하고 호박, 조개, 양파, 콩나물의 고추장 찌개에다 술도 집에서 빚은 동동주였으니 그 「집들이」는 단연 인기였던 것이다.

그렇게 「집들이」까지 한 「내집」을 내놓고 빈손으로 나가야하는 형제들이 늘어가니 오죽 가슴이 쓰라린 것인가. 밑돈으로 「다운페이」한 것까지 날아가 버리는 형편이다.

노동으로 이삼만불을 저축하기까진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었는가.

흥청거릴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휴업수당가지고는 큰집 유지가 어려워진 까닭이다. 어찌할수도 없는 일이나 모두들 집과 땅을 내놓지만 누가 사겠다고 해야지.

공연히 우리끼리 경쟁을 한 결과가 되었지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가슴이 아파진다. 그러나 돈이 어디서 낮잠을 주무시는지 영 돌아올 기미가 안보인다. 돈이란 돌고 돌아야지, 한쪽에만 몰려있어도 큰일이다.

마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사막처럼 삭막하고 호전적이 되듯이, 불황이 휘몰고 지나자 잘난척하던 분들이 제일먼저 엄살을 편다.

「아휴, 돈벼락이 떨어져야겠어!」

「암, 그래야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누굴 놀리는 거야?」

「제 될대로 되는 건데 뭐!」

「도대체 돈이란 뭐요?」

「은전 몇냥에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괴물이지 뭐. 난산의 산모가 돈뭉치를 갖다 놓는다나. 시퍼런 캐쉬를 보고 속 좀 썩이지 말고, 빨랑 나오라는 의미요. 또 상여꾼에게 노자돈을 주는 풍습이 있잖아. 죽은 사람도 사공에게 배삯을 안내면 요단강을 건너주지 않는가 봐. 죽어서도 상여 한번 타보는 게 얼마나 여유가 있소. 그런데 저 앰블랜스 운전사도 돈 올리라고 응급환자를 외면한채 데모하는 것 못보았소? 돈벌이가 좋으면 아이들도 어리광이고, 마나님도 상냥해지지만 실직이 되어 마주앉아있어봐. 아, 당신은 빼놓고 하는 말이야. 화 좀 내지 마! 누가 미워서 그러는가 뭐. 원래 돈이란 기생이거든.」

「기생?」

「요리집엘 가봤어야 기생을 알지. 아, 그래 화 좀 내지 말어.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곳을 가봤겠어? 그 기생이란 돈만 좋아하니까, 즉 권력이 있는 어르신네, 왕창 떼어 잡숫길 잘하는 기업가, 불란서제 고급가구를 합법적으로 들고 가시는 관료들, 무슨 영자라는 미녀 좋아하다 망신당한 롱뻬들… 아예 가늘게 싸라구.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벼락이 나쁘다 이거지 뭐. 부동산투기가 이곳에선 통하지 않나 봐.」

「그래도 두번째집까진 재미 봤거든. 캐나다에서도!」

「그것 봐. 꼬리가 길었잖아. 지나간 일이야 어쩌누. 그런데 우리 선비들은 지독히 돈을 경계하였다구. 기생처럼 알랑거리는 돈이 자칫하면 허영과 낭비를 부채질하면서 번거로운 일만 만드니까. 하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어렵지 뭐. 돈에 중독이 걸리면 허황스런 돈벼락만 찾아다니거든. 뭐 좋은게 없소. 하고 말이야. 우린 전쟁도 치렀고 피난도 가면서 어려움에 숙달이 된 사람들이지. 깔구 뭉개면서 비벼대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잖소.」

「깔고 뭉개다니?」

「그럼 어쩔 거여? 푹신한 안락의자 집어치고 마루바닥이면 어때. 식탁 대신 신문지 깔고 살면 어떠냐구! 집장사해서 고급차를 타더니, 사람까지 최고급이 된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쳐다도 안본게 누구야?」

「젠장, 그 소리 나올줄 알았어!」

「이번 불황이야말로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게 아니겠소? 소유욕도 나만 잘살겠다는 내 욕심만 갖고서는 모두가 잘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잖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공동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훈련이 서툴다고 봐야 해요. 벌써부터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했을 때 우리들은 비웃고 말았거든. 웃기지 말어. 숫자놀이나 하는 네가 뭘 아느냐고! 또 한 임진란도 율곡선생의 제언을 선뜻 받아들였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거든. 그러나 만사가 자기중심이 되니까 공리성이 파괴되어간다 이말이요.

이제부터 돈벼락 따위는 기대하지 말고 기생 같은 돈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야.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고 믿고, 기웃기웃 기회나 보는 태도를 씻어버리면 우린 결코 불황 따위는 타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언제인가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노동력이 필요할 때 누가 두번 다시 돈벼락의 천재들을 받아주겠대요?」

「체!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군. 한밑천 잡았으니까 좀 살만 하시다 이거야? 아니꼽다. 아니꼬와!」

「진정 좀 하셔. 홍역이야 다 같이 치르는 건데 뭘. 어느 지역에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나폴레옹 꼬낙 좀 못마시기로소니 뭘 그렇게까지야!」

「그럼 돈벼락이 언제 떨어진다?」

「그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럿이 조금씩 만드는 거라니까. 황금신께선 다같이 살려는 민족에게만 돈벼락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왜 자꾸 화만 내는거야. 마치 자기 교회만 부흥케 해달라는 누구같구만!」

돈벼락이란 떨어지는게 아니고 여럿이 조금씩 만드는것

재미 정치학자들 「北韓방문기」出刊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한 남북대화는 성숙되지 못할것이라고 최근 출판된 북한관계책자에서 밝히고있다.

이책자는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교포정치학자들의 「북한방문기」를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문제연구소(Institute of East Asia Studies, UC Berkeley)가 한반도 연구자료로 출간한 것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환생

이정원

부추겨 올린 죄 밖에는
담을 그릇이 없는
봄을 펼쳐 놓고
캄캄하게 쓰러져 있던
나의 어두움과
따스히 손을 잡는다.
따스히 결속된 혈맥을 밟으며
이제
그 어디쯤 서성거리고 있을
불박힌 언어의 혼을 잡기 위해
그리움 처럼
그리움 처럼
갈증의 불살을 펴고 있다.
잊혀진 자에게도
잃어버린 자에게도
당당히 펼쳐진 봄이 찾아 올 것인가
잡히지 않는 사람의 숨결 처럼
알 수 없이 지나가고 있는
어두운 슬픔들.
슬픔은
놓쳐 버린 의지에서 오는가.
아니면
파릇이 돋고 있는 저 새싹이 불러들여 오는가.
부추겨 올린 죄 밖에는
담을 그릇이 없는 봄을 펼쳐 놓고
캄캄하게 쓰러져 있던
나의 어두움과
따스히
따스히
손을 잡는다.

몸매자랑「프린시펄」

▲『매일 15분씩 운동을 해요』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는 「달라스」의 인기여우 빅토리아•프린시펄. 자신의 미의 힌트를 모아 「더 바디 프린시펄」이란 책을 박간해낸 프린시펄은 현재 또다른 책 「뷰티 프린시펄」을 집필중이라고.

〈연재소설〉

혼돈 ㉛

글 이대준 그림 최미성

제2편 착수

"유리창을 깰려면 유리칼이 필요 없어. 깨지 않을려니까 필요하지. 내가 유리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너희 둘은 저기 있는 바베큐대를 이 창문 바로 앞으로 옮겨놔. 소리를 내지 말고 말이야!"

영수는 명령투의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한아, 나는 그냥 가고 싶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려서 집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영수가 사라진 뒤 태영은 땅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다. 수한은 어이없이 태영을 바라보다

"나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우리는 서약을 했지 않아? 빨리 일어나. 시간이 없어. 영수가 오기 전에 바베큐대를 옮겨놔야 돼."

태영은 비비적거리고 일어나 바베큐대로 가고 있는 수한을 따라갔다.

유리칼을 가지고 온 영수가 바베큐대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유리창에 칼을 대고 가장자리를 따라 그어갔다. 유리위에 유리칼 지나가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

자른 유리를 꺼내는 방법은 미처 생각해 두지 못했던 영수는 유리를 잘라놓고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난감했다.

"그걸 꺼내려 하다가는 유리를 박살내고야 말거야. 아랫쪽 귀퉁이만 조금 끊어내고, 손을 넣어 문을 열도록 해봐."

조마조마하며 쳐다만 보고 있던 수한이 숨을 색색거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그렇지!"

영수의 속삭이는 소리를 이어 유리칼이 지나는 소리가 짧게 두번 들렸다.

"됐다!"

영수는 이마를 타고 내리는 땀방울을 장갑을 낀 손등으로 문지르고 난 다음 한 손으로는 유리창의 중앙을 지그시 누르며 옆주먹으로 자른 부분의 유리창을 툭 쳤다.

"쨍그랑!"

"쨍그랑!"

자른 부분의 유리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창의 양쪽 귀퉁이에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영수는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됐다. 바깥 창문은 열렸다."

영수는 신음소리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쪽 창문을 열었다.

"들어와. 수한이는 계속 망을 보고, 태영이는 나를 따라 들어와."

영수가 커텐을 젖히고 들어가며 말했다. 태영이 들어올 때까지 어둠속에 비석처럼 서있던 영수가 태영이 창문을 넘어오자 손전기를 켰다.

"어디야, 안방이?"

"조용히해. 웃층에 동생들이 자고 있을지도 몰라."

태영이 앞장을 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뒤꿈치를 들고 태영의 뒤를 따랐다. 안방은 웃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야! 제왕의 침실같구나."

태영이 문을 닫고 불을 켰을때 영수는 눈을 휘둥그랗게 떴다.

"우리 어머니의 자랑거리야. 나보다도 소중한 우리 어머니의 자랑거리야. 이 침대와 경대는 말이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리면 태영이 미친 듯이 화장대의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다.

"전혀 짚히는 곳이 없니?"

"겟돈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았어도 어디다 감추는지는 몰라."

백달러짜리 뭉치와 귀금속들이 가지런히…

영수의 물음에 태영이 경대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영수는 클로셋트의 문을 열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구석에 라면박스가 하나 보였다. 그는 라면박스를 꺼내어 헤집기 시작했다. 헌옷, 양말등을 쑤셔 박아논 라면박스 밑바닥에는 자개상자가 감추어져 있었다.

(가장 허술하고 관심이 없는 곳에…)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개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다 숨겨놓았을까?)

태영은 경대의 서랍을 모두 열어놓고 수라장을 만들고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며 방안을 둘러보던 영수의 눈에 유난스럽게 밑부분이 큰 전기스탠드가 들어왔다. 스탠드는 침대옆 코너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다.

영수는 스탠드를 들고 밑부분을 올려다보았다.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밑부분이 서랍식으로 빼면 열리게 되어 있었다.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서랍을 빼냈다.

"찾았다! 태영아, 찾았다!"

침대의 밑부분을 뒤지고 있던 태영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서랍 속에는 백달러짜리로만 묶은 세개의 돈뭉치 외에 반지와 목걸이 등의 귀금속도 들어있었다.

영수는 놀란 눈으로 태영을 바라다보았다. 태영의 눈빛이 붉게 타고 있었다.

"빨리 쑤셔넣고 나가. 시간이 없어."

그들은 돈과 귀금속을 나누어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서랍을 닫았다.

"영수야, 유리칼이 있지?"

방을 빠져나가려던 태영이 멈칫 서며 물었다.

"왜?"

"이리줘. 빨리!"

영수는 영문을 모르고 태영에게 유리칼을 건네주었다. 유리칼을 받아쥔 태영이 경대 앞으로 다가가 미친 듯이 경대를 그어대기 시작했다.

'야, 너 왜 이러니?"

어처구니 없어 바라보던 영수가 태영의 등을 잡아당겼다.

"허공에 뜬 어머니를 제자리에 앉혀야 돼."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찾았니?"

초조하게 망을 보며 기다리던 수한이 소근거리며 물었다.

"성공이야."

영수는 수한의 손을 호주머니에 갖다대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가자. 기분이 좋지 않다."

멍청히 서있던 태영이 발걸음을 옮기며 힘없이 말했다. (계속)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PRE SUMMER 브랜든 스포츠사
SPECIAL SALE

⊙각종 야구장비 일체
⊙각 단체 유니폼 맞춤 (30가지에 각종 스타일 품목)
(주문복은 3~4주가 필요함)
⊙운동기구, 트레이닝복, 골프장비 일체
⊙각종 트로피, 상패전문

adidas
Wilson
BRANDON SPORTS
전문인의 집
브랜든 종합 운동구점
337 BLOOR ST. W. TORONTO 〈연합교회 건너편 고층건물〉
598-3732 이 건 영

한국일보
우리의建實은健全한新聞

交通사고急增

하루 17명꼴 死亡

—治安本部 지난20년 사고 分析

10년前보다 3倍늘어
운전자의 法規위반 93%

「교통사고왕국」이란오명을 쓰고있는 우리나라는 해를거듭할수록 교통사고가 급증추세를보여 19년전에 비해서는 23배, 10년전에비해서는 무려 3배나 사고가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14세이하의 어린이들이 가장많이 희생되고있으며 하루평균 17명이숨지고 3백58명이 부상을당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치안본부가 25일 지난 20년동안의 전국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밝혀졌는데 지난해의경우사고원인은 운전자법규위반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있었다.

그외에 교통안전시설의 미흡, 차체의 약함등이 복합적으로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

치안본부 집계에따르면 교통사고로인한 인명피해중 14세이하의 어린이가 전체사망자의 24%, 부상자도 16%로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도 6세이하의 어린이가 가장많은 사망자수를 차지하고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4만1천2백18건, 이중에서 인적피해건수는 10만1천5백28건이었고 사망자는 6천1백10명, 부상자는 13만6백5명이나돼 하루평균 17명이 숨졌다.

이를 전체발생건수 면에서볼땐 19년전인 63년의 6천53건보다 23배, 10년전인 72년 4만3천7백51건보다는약 3배나늘어난것이다.

또 사망자는 63년보다 4.6배, 72년보다는 2배가 늘어났다.

72년부터 10년간 추세를 보면 전체사고건수는 연평균 22%, 사망자는 9%, 부상자는 17%씩 증가한것으로 나타났고 재산피해는 72년 7억1천2백12만원보다 82년에는 18배가 늘어난 1백31억7천2백38만원으로 집계돼 연평균 1백75%씩 증가했다.

인명피해를 보면 지난70년엔 1일평균 사망자가 8.4명이던것이 75년에는 10.4명, 82년에는 16.7명으로 급증했고 부상자는 70년 1백17.3명이, 75년에는 1백68.7명, 82년에는 3백57.8명으로 엄청난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외국과비교하면 지난 80년의경우 인구10만명당 사망률이 14.9%로 미국의 22.7% 프랑스 23.3% 서독 21.1%보다는낮으나 일본의 10.5% 영국 11.2%보다는 높은것으로 비교됐다.

그러나 자동차 수에비교한 우리의 인명피해는 엄청난것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미국(79년)은 3.3명이고 일본(81년)은 2.1명 서독(80년)이 5.3명 프랑스가 5.8명인데비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58명으로 자동차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선진국보다 10여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도별 1일평균 교통사고

구분 / 연도	1일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계	인적피해사고	물적피해사고	1일평균 사망	1일평균 부상
1970	102·0	86·0	16·4	8·4	117·3
1971	128·9	107·2	21·6	9·4	145·1
1972	119·8	98·2	21·6	8·4	130·2
1973	119·1	9·7	27·7	8·4	132·5
1974	116·3	94·1	22·3	8·5	131·7
1975	159·7	123·2	36·6	10·4	168·7
1976	192·4	131·3	61·6	10·6	179·8
1977	216·0	149·5	66·6	11·2	211·3
1978	258·4	178·5	79·8	14·0	250·5
1979	312·1	214·2	98·0	16·5	290·3
1980	328·3	228·7	99·6	15·3	305·0
1981	338·0	238·7	99·3	15·9	315·8
1982	386·9	278·1	108·7	16·7	357·8

貿易業 등록制로

金商工 改正案마련 國會議決거쳐 내년 실시

정부는 현행 무역거래법을 고쳐 지금까지 허가제로되어있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바꾸기로했다.

金東輝상공부장관은 25일 民正黨정책위 상공분과위와 가진 黨政협의회에서 『지난67년 제정된 무역거래법내용은 오는 90년대의 수출목표액 1천억달러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고 『학계 재계 언론계등 각계의 의견을들어 개정안을 마련, 올정기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국제상품기본분류(CCCN)대상품목 7천5백60개중 자동승인품목(AA)상품을 금년에는 2백57개 늘려 수입자유화품목을 지금의 76%에서 80.38%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은 수입자유화대상품목을 확대하는것은 20억달러로 예상되는 올 무역적자를 더이상 늘리지않는 선에서 자동승인품목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民正黨은 또 『獨寡占품목의 수입개방은 현재의 44.5%에서 45.7%로 1.2%밖에 증가되지않아 전체의 80.38%에비해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독과점품목중 전지분유 야쿠르트등 농산품과 국제경쟁력 비교劣位산업인 석유화학계열 제품등을 제외한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등은 수입자유화를 늘려야한다』고 요구했다.

"公務員은 先進조국 창조향도"

全대통령, 海外파견공무원 45명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5일상오 청와대에서 선진국의각종제도등을 연구하기 위해 美·日·英·獨등에 파견될 공무원45명으로부터 신고를받고 『모든 공무원은 선진조국창조의 향도라는 사명감을갖고 실력과 정신자세를 더욱 연마해야될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全대통령은『과거에는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 적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빚어왔었다』고 지적,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의전통과 문화, 그리고 민족성을 고려해 우리실정에맞게 소화,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세계사에 主體的으로 등장하는선진조국을 우리는기필코 이룩해야하며, 그러한 목표는 우리의 底力과 경험으로보아 반드시 이룩할수있다고 확신한다』고밝히고 『과연 선진국들의공무원들은 나라를위해 어떻게 직무를수행하고있으며, 또 수출교육 과학기술등과 관련한 그들의행정제도는어떻게돼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해,우리행정에 새로운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고한 공무원들은 선진국연구를 위해 올해안에 1백명가운데 1차로파견될 대상자들이다.이자리에는 金埈成부총리, 朴贊兢총무처장관이배석했다.

총무회담 無期연기

與野는 25일상오에 갖기로했던 총무회담을 26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무기연기시켰다.

李鍾贊民正黨원내총무는 25일하오『25일 상오중 갖기로했다가 26일로 연기했던 총무회담을 열필요가없어졌다』고 말하고 『民韓·국민당등 야당도 이를 양해했다』고 밝혔다.

李총무는 『총무회담대신 26일 저녁에있을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소집의 전제가되는 정부의法案제출실적을 보아가며 6월국회소집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林鍾基총무는 25일『6월임시국회는 정부측의 國政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벌여 국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말하고『6월10일께부터 會期 20일정도의 국회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3黨代表 만나

국회소집등 문제논의

民正黨의 陳懿鍾 대표위원, 民韓黨柳致松총재, 국민당 金鍾哲총재등 3당대표와 蔡汶植국회의장은 24일저녁 陳대표초청으로 시내모처에서 회동, 2시간여동안 저녁을들며 국회소집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蔡의장이 지난 4월20일 취임과함께 3당대표를 초청한데 대한 陳대표의 答禮·초청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會同에서는 6월임시국회를 빠른시일내 소집하고 6월국회를 차질이없이 운영하자는데 의견을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國政자문위원 出國

國政자문회의의 許政 南悳祐 金容完자문위원은 약20일간에 걸쳐 일본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필리핀등 東南亞지역을 시찰하기위해 25일 하오 출국했다.

이에 앞서 李英燮 洪承萬 高在珌자문위원등은 인도 파키스탄 버마등 西南亞지역을 시찰하기위해 24일 출국했다.

金총리 釜山시찰

【釜山】金相浹국무총리는 25일 慶南梁山의 古里원자력발전소를 비롯, 釜山요트경기장과 지하철공사현장, 釜山港, 洛東江하구언공사장을 차례로 돌아봤다.

金총리는 古里원자력발전소에서 閔慶植발전본부장으로부터 발전소현황에 대해 보고받은뒤『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료의 국산화를 앞당기기위한 연구에 더욱 노력하라』고 말하고『원자력발전소주변의 海上경비등 방호경비를 철저히하고 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이어 釜山水營에 있는 요트경기장공사현장에서 崔鍾鎬시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釜山요트경기장은 세계의 어느 경기장보다 앞설수있는 훌륭한 경기장이 되도록 만들어 86년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도록하라』고 지시했다.

民正, 부동산仲介法 보완키로

정부는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 6대도시와 특정지역의 복덕방영업을 허가제로하고 부동산소개업자에대해 부분적인 자격제를 도입하는것을 골자로하는 不動産紹介法案을마련, 국회심의를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마련, 25일 黨政협조를위해 民正黨에 넘긴 이법안은 부동산소개업자를 公認仲介士와 仲介人으로 구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는 전국어디에서나 영업을 할수있도록 하고 ▲중개인은 當該市·區·郡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구분하는한편 소정手數料이외의 금품授受행위를 금지시키며 이를 위반한경우 허가취소, 신고말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할수있도록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參禪하는 공무원들

◇「核心관리자훈련과정」의 坐禪훈련을 하고있는 중견공무원들。삭발은 않았지만「修道僧」의 坐禪모습을 방불케 한다。지난23일부터 2주간예정으로 果川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과정에는 정신훈련과 함께 克己, 感受性훈련등도 포함돼 있다。【李昌淳기자찍음】

승객 6백명旅客船 침몰

악어득실대는 나일江서

【카이로AP聯合=特約】6백명이상의 승객을태운 한여객선이 25일 화재로 인해 악어가 득실거리는 이집트동부의 나일강에 침몰,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집트경찰이 밝혔다.

사고현장에서 카이로에 들어온 1차보고에 따르면 승무원28명을 포함, 총6백27명의 승객중 1백83명이 구조되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사고발생직후 현지구조반은 강속으로들어가 인명을 구조할수있는 잠수부를 포함한 긴급구조대를 파견해주도록 당국에 요청하고 다.

이여객선은 남부이집트의 겨울휴양지인 아스완과 수단북부의 와디 할파를 왕복운항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시에는 수단인 5백47명, 이집트인 48명, 프랑스인 1명등이 타고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中共外相 吳學謙 北傀방문후 귀국

【서울=聯合】北傀를방문한 中共外相 吳學謙이 5박6일간의 滯北일정을 마치고 25일 귀국한것으로 북괴평양방송이 보도했다.

吳는 귀국에 앞서 24일 平壤주재 中共대사관에서 北傀부총리겸 외상 許錟, 대외문화연락위원장 金寬燮, 무역부장 崔定根, 외교副부장 金재숙등을 초청한 연회에서 연설했다.

社會漫評

異常가뭄으로 金庫땅이…

地平線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ㅡ 나라를 잃고 官職을 그만둔 杜甫가 읊은 유명한 詩다. 安祿山의 亂으로 唐의도읍은 파괴되었지만 유구한 山河는 그냥 있구나 하는뜻이다. ▼그런데 2次大戰후, 많은 나라가 국토를 재건하면서 「國破山河衰」를 걱정한 소리가 높아졌다. 공업화로 경제재건은 이룩했으나, 이에 따른 자연파괴가 골치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수는 없다. 科學技術의 힘을 빌어 경제가 성장하고 공업단지가늘고, 고속도로가 전국토를 종횡으로 달리지만, 자연보호가 그만큼 철저하지못한 탓이다. ▼어느새 솔잎혹파리가 우리 강토를 휩쓸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산들이 눈에띄게 많아졌다. 무서운 솔잎혹파리는 소나무의 품계를 가리지 않는다. 世祖가 지나갈때 장애가 되는 오른쪽가지를 번쩍쳐들어 判書級 벼슬을 받았다는 俗離山의 正二品松(천연기념물 103호)마저 이병으로 시름시름앓고 있는 것이다. 보호망을 두른 이名樹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樹幹주사와 투약으로 수천만원을들여 어느정도 병세가호전되기는 했으나, 올해도 枯死위기를 이기느라 鬪病을 거듭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2천여개 쇠파이프에 둘러싸인 보호망속의 正二品松은 그야말로 현대문명의 위기를 상징한다. 樹齡 6백년의 老木이기는 하나, 아직도 수백년을 더 살수있는 소나무다. 그까짓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죽는대서 문제되는것이 아니라, 유래깊은 이소나무를 살리려는 인간의 노력이, 자연을 아끼려는 순박한인간의 사랑이 이기느냐, 꺾이느냐의 싸움이기에, 正二品松을 향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더우기나, 소나무에는 독특한 향기가있고 우리의 얼과, 生活史가 서려있다. 한나라국민성을 보려면 그들땅에자란 숲을보라는 말도 생각난다. 독일국민의 근면성과 끈기가그들이 가꾼울창한 숲에서나왔다고 하지 않는가. 요즘에는 森林浴이란 말까지나돈다. 소나무의 꽃꽃하고의연한 기상을 가상히여겼던 조상들의 마음가짐을 생가하며, 간절한 想念이인다. 正二品松이여, 부디 오래사시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직 급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공 고

1983년도 토론토한인회 이사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이 사 장 : 김태진
부이사장 : 박광철, 이영현
총무이사 : 조충원
서기이사 : 박 철

강공선 고순복 김국범 김문량 김영철 김용규 김의애 김인열
라덕현 문옥섭 박대현 박선교 박영제 박인순 박주삼 변장엽
배형도 백준기 서명식 서정길 서춘경 성용창 유승현 이근우
이기철 이대환 이병권 이부현 이상구 이상남 이상호 이승영
이영만 이영목 장영대 장영채 장추신 장필규 정용주 조기연 정병조
조병역 조영호 차선겸 최회권 한광명 함의현 홍기만 황길녀
변의섭 이기훈 장순채 회장단 (자동이사)

토론토지구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김태진

社說

봉투 教室

엊그제 문교부는 최근들어 대도시학교주변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사이에 돈봉투를주고받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여러사례가 관계당국에 적발되었다고 지적, 각 시·도 교육위와 학교는 자체적으로 실정에맞는 근절대책을세워 이를 강력히 추진해나가라고 시달했다한다.

「폭력교실」 문제가 심각한 두통거리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교사들이「돈 봉투」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교육자의 자격을 포기하고, 우리의 교육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폐습이 남아있다는 관계당국자의 公言에 접하고나니, 오늘의 세태를 개탄하지 않을수없다.

모든 스승은 드높은 사명감과 矜持를지니고 熱과誠을다하여 제자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을때 큰보람과 喜悅을느끼는 교육자가 되어야 할터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기때문이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刻苦勉學型인 가난한집자녀들이 부유층의 자녀들보다 공부를 잘하는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부자집의 자녀들이 貧家의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잘 한다는 世評이 없지않다. 음성적인 과외수업문제는 제쳐놓고라도 돈이 많으면 그렇지못한 학생들보다 보충교재나 실험·실습용기구 같은것을 한가지라도 더 사서 쓸수있을터이니 그 양상의 변화론을 이해할만하다.

하나 이것은 一面觀에 지나지 않는모양이다. 스승에게 건네준 「돈봉투의 威力」에 힘입어 우수한 학업성적」을 따낸 머리 빈 학생들이 虛勢를 부리는 경우가 없지 않은 실정이라니 말이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들지 않는 자식을위해 선생에게 돈(뇌물)을 주어가면서까지 떳떳하지못한 생활습성으로 젖어들게하는것이 참된 자녀사랑인지 일부지각없는 학부모들에대해 그 愛情觀을 묻고 싶어진다.

한편 스승과 제자의관계는 인격적인이해와 신뢰가 전제로되어야하기때문에 교사는 제자로부터 인간적 존경을받기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은 그간 퇴색한 師道를밝히고 실추된 교권확립을위해 心機一轉의자세를갖추고 敎壇에서야한다. 대학입시에 고교내신성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때부터「돈봉투건네기」바람이 다시 고개를 들기시작했다니, 스승들의 처신이 더욱 조심스럽기를 당부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拜金風潮가 판치기전인 지난날의 우리스승들은 安貧樂道할줄아는 정신적 여유속에서 살아왔다. 예컨대 缺食하는제자를위하여 넉넉하지 못한 家計를 무릅쓰고 도시락을 덤으로 싸서 들고다닌 교사들도있지않았는가.

한데「先進」을외치는 오늘날일부 교사들이나마, 돈봉투에 눈이 어두워 성적을 조작해주고 제자를 偏愛하는 따위의 非理가 尙存한다고함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회에 모든 교사들에게 깊은지식은 물론 높은 인격과 德性을 거듭당부하게된다. 동시에 돈봉투를 선생에게 줄 여유가있는 학부모들은 그것을 은밀히 건네주지 말고 양성적인 교육성금으로 내놓을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문교부는 교육계의 물질적인 부조리를없애기위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접촉을 될수록 삼가라고했다. 이에도 一理가있기는하나, 청소년선도및 교육능률의 향상을위해서 가정과 학교, 스승과 학부모간의 긴밀한연락과 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수도 있다는점에 留意, 신축성있는 配慮를 했으면한다.

9,000,000톤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제철공장인 浦項製鐵은 그동안추진중이던 제4기 확장공사를 모두 끝내고 25일 새롭게 붙혀진 제2高爐에 불을 지폈다.

이번공사가 끝남으로써 浦鐵은 粗鋼연산9백만톤생산체제를 완비하게 되었고 단일제철공장으로 세계제4位에 오르게되었다.

지난 73년7월 1백3만톤체제로 제1기공사를 준공시킨이후, 한쪽에서생산하면서 2,3,4기 확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포철포항공장의 최종목표인 9백만톤체제를 마무리지은것이다.

이번 종합준공이 갖는 뜻은 매우크다. 공업의 기초소재로서『산업의 쌀』이라고 일컫는 철강산업은 우리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간산업인 동시에 外貨節減 또는 外貨稼得산업일뿐더러, 방위산업등 국가安保를 위한 전략산업에 틀림없다.

浦鐵이 완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제강능력은 조강연산1천2백만톤에이르러, 한때 우리보다앞서있던 北韓의 조강생산을 2배이상 능가하게 되었고, 품질면에서는 비교도 안될만큼 앞서게 되었다.

본시 제철산업은 막대한 국고보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터이고,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赤字경영이니면 심한 稼動率저하를 면치 못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浦鐵이 조업초기부터 黑字경영을 기록 하고, 그동안 세계적 철강 불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百%에 달하는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국내 철강공급의 원활과 아울러 가격안정에 이바지하였음은 물론이고, 국제 수지개선 이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기여가 있었다.

그뿐더러 처음에는 거의 외국기술에 의존해야만했던 고로의 제철기술을 축적했고, 이제와서는 제3국에 제철기술을 수출할수 있을만큼 장족의 발전을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따라 浦鐵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제철산업에대하여 외국사람들도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게되었다. 「부메랑」효과등을 염려하는 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최신예 설비의 판매마저 꺼리고 있음을 생각할때, 앞으로 우리제철산업은 어떠한경우에도 견디어낼수있는 태세를 정비해 나가야할것으로 본다. 자체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조업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품질의 고급화와 새로운제품의 연구개발에 주력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세계철강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光陽제철소의 건설과 가동에도 차질을 회피할수 있을것으로 믿는다.

세계철강수급전망은 결코 낙관할수 없음으로 우리제철산업에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완공된 浦鐵이 품질 가격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철강수급전망과 경기부침에 지나친 과부족현상이 일어나지않도록, 장차를 내다보면서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한다.

쓸개의 쓸모

그제 나간 社說「나라가 곰쓸개를 팔면…」에 대하여, 독자들로부터 약간 의아해 하는 반응이 있었다.

독자들의 지적은 그社說중 곰쓸개를 公賣하는것은 자연보호·조수보호의 행정구호와도 어긋난다고 한대목에관한것이다. 귀중한 약재를 버리기가 아깝고, 값진 물건을 폐기한다는것이 행정관리제도에 비추어 온당하냐는지적이다.

그래서, 먼저 社說을부연하자면,「그 社說의 취지는 곰쓸개를 公賣않는것이 옳겠다는 것뿐, 쓸개를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분명 곰쓸개는 쓸모가있으니, 그 쓸모를 따라 바로 써야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다.

그 쓸모란 쓸개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자료로 넘겨주는것이다. 그결과로 곰쓸개의 효험이 몇천만원씩 호가할 것이 못된다고 밝혀져도 좋고, 지금까지 몰랐던 유별난 有効성분이 발견된다고하면, 국민건강을위해, 더욱 좋다. 어느 경우거나 그 곰쓸개는 값지게 쓰인 셈이된다.

우리가 알기에 쓸개의 有効成분은 膽汁酸이다. 곰에 특유한 膽汁酸이 있다고 하나, 그 성분은 이미 합성에 성공한 물질이라고 들었다. 몇천만원씩 들이지 않고도 그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곰을 사고파는 어리석음은 물론, 補藥으로 몇천만원씩을 쓰는 사람을 보란듯이 나서게 할때, 약값 몇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의 눈총이 어떠할지도 생각했으면 한다.

"美, 中共에 高度기술 수출"

美商務, 北京서 밝혀 軍事品目 규제완화

【北京UPI·聯合=聯合】 맬컴·볼드리지 美商務長官은 24일 미국이 고급기술을 중공에수출할 용의가있다고 밝히고 양국의 쌍무무역관계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5일간의 방문예정으로 지난 21일 중공에도착한 볼드리지장관은美상공회의소가베푼 오찬석상에서 레이건대통령이 對중공고급기술수출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정밀기술에대한 정책전환은 결정하기 어려운것』이라고말했다.

佛교수·학생 萬여명 示威

교육改革法案 항의

【파리UPI=聯合】 프랑스의회가 말썽많은 교육개혁법안심의에 들어간것과 때맞춰 1만1천여명의 학생·교수들은 24일 의회건물밖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차량을 전복시키는등 강력한 항의데모를 벌였다.

대학생과 교수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깃발을 세우고 항의구호를 외치면서 파리시가지를 행진, 의사당앞에 운집했으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들을 저지하려하자 수십명의 학생들은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려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살수포로 폭력발생을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시위로 4명의경찰간부가 부상하고 학생2명이 구속되었다고 말했다.

"蘇·아프간叛軍 休戰"

西方외교 소식통

【뉴델리AP·UPI=聯合】 아프가니스탄 회교저항 군지도자들중 가장 유명한 인물인 아메드·샤·마수드(29)는 아프간주둔 소련군과 휴전키로 합의했다고 뉴델리의 한 서방외교관이 24일 밝혔다.

이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아프간의 판지시르 계곡에서 反蘇항쟁을 벌여온 회교저항군지도자 마수드가 아프간 회교저항군의 최대요충인 판지시르 계곡에서 전투를 중지하기로 소련군측과 합의함으로써『소련과 아프간 정권에군사·정치적 성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금년초 아프간 정권이 개입하지않은가운데 마수드와 소련군측사이에 판지시르 계곡내에서의 휴전이 성립되어 현재이계곡에서는전투가벌어지지않고있다』고말했다.

MX개발비 승인 레이건政策 승리

【워싱턴AP聯合=聯合】 미국下院은 2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MX미사일의 개발및 시험발사비용 6억2천5백만달러의 지출을 승인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국방정책에 주요승리를 안겨주었다.

下院은 이날 80년대안에 1백基의 MX미사일을생산 배치하고 90년대까지새로운 小型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할것을 골자로한 레이건대통령의 국방계획중 MX미사일 1차분 생산비지출안건을 표결에붙여 2백39對1백86으로 가결, 上院으로 이송했다.

美·蘇 핫라인 强化 레이건, 소련에 提議

【워싱턴UPI AP=聯合】 레이건대통령은 24일 美·蘇간에 발생할지도 모를돌발적인 核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백악관과 크렘린간의 비상직통전화 (핫라인) 체제를 개선하고 양국간의 다른긴급통신체제도 신설 또는보강할것을 소련측에 제의했다.

레이건대통령은 한 백악관식전에서의 연설을 통해『美·蘇간의 보다 신속한 직통연락체제의 확장은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기 때문에』소련에 이같은 제의를 한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련이 이 제의를 검토해 줄것을 촉구했다.

◇MX미사일 靑寫眞 보는「議會의 눈」 MX미사일 개발에 관한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스·애스포 (共和) 의원등 4명의 하원의원들이 MX미사일 개발계획서를 들여다보고있다. 【워싱턴24日AP聯合=聯合】

史上최초: 姙婦가 宇宙船 탄다

챌린저號에 오를 美의 첫女性우주인 라이드氏

『당신은 우주여행을 하는 최초의 임신부가 아닐까요?』한여기자가 이렇게 묻자 미국최초의여성우주비행사가될 샐리·라이드여사는『글쎄요』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오는6월18일 2번째우주여행에 오를 챌린저우주왕복선에탈 5명의 우주인들가운데 홍일점인 라이드여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고 있다. 26일로 32살이되는 그는 장도에오르기 앞서 최근 같은 우주비행사인 스티브·하울리씨와 결혼, 임신여부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최초의 여성우주인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에 될수있는대로 빨리 가보기위해 이계획에 참여하게 됐다』고말하고『물의를 일으키[illegible]』고 자신의 참여에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매스컴을 비꼬았다.

30대 天文學박사… 남편도 우주비행사

1천5백여명의 여성지원자중 선발돼

라이드여사는 또『미국여성들은 하고싶은일은 어떤일이든간에 한다는것을 인식할때가 됐다』고 女權을 옹호하기도했다.

그는 또동료승무원 존·파비언과 함께 6일간의챌린저호의 로버트팔을 이용해서 화물칸으로부터 2개의 통신위성을 공간에띄우는 임무를 수행하게된다.

스탠퍼드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해 26세때 X선천문학연구로 박사학위를 얻은 샐리는 박사학위를받자마자 NASA(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로 뽑혔다. 1천5백44명의 여성지원자가운데 뽑힌 6명중 한사람이고 현재 NASA에있는 78명의 우주비행사중 최연소자이다.

라이드여사는 여자우주비행사라는데서 화제도많이 뿌렸다. 아폴로우주계획때부터 NASA관계자들은『변소도 따로 없는데 숙녀가 어떻게 남자들과함께 우주선을 탈수있을 것인가』라고 곧잘 얘기해온터라 실제로 여성우주인이 탄생되자 말도많다. 그러나 챌린저호에는 좌변기가 놓여있어 그런 걱정은 해소됐다.

18세때 테니스선수로 東部지역학생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을 갖고있는 그는 예언자의 占卦를 듣고 우주비행사모집에 응시한 것이 진짜우주인이된계기가됐다고한다. 【崔海雲기자】

◇체스의 中·蘇대결 蘇聯의 체스(서양장기) 大家 유리·발라초프가 24일 20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中·蘇체스경기에서 10명의 中共 젊은이들과 동시에 경기를 벌이는 도중 다음수를 생각하고있다. 【北京 24日 AP聯合=聯合】

세계「性과학祭典」대성황

美선 처음…관계학자등 1천명몰려

상영이금지된 性영화의 시사회등을포함、性과학에 대한 토의를 갖는 제6차 세계性과학대회가 23일부터 미국에선 처음으로열려 性관계학자등 1천명이 운집、대성황을 이루었다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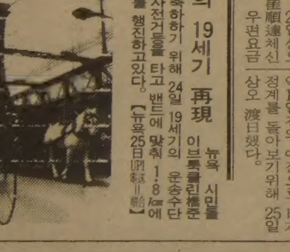
일주일간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연사로서 저명한 性연구가 세르·하이테、윌리엄·매스터즈씨등이 초빙됐으며 8백95명의 性연구가·교육자 임상의사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은「에로의 역사」라는 금지된 性영화를 관람한뒤 이영화의 제작과 출연을 함께 맡은 사람들과 토의를 벌일것이라고。 【UPI】

海外토픽

中國系 싱가포르人 절에 32억여원施主

싱가포르의 한 중국계백만장자가 어느 절에 자그마치 9백만 싱가포르달러 (약32억2천5백만원)를 시주했다고 싱가포르의 중국어일간지가 23일 보도。

신문은 이절의 주지를인용、국내와 호주 뉴질랜드등지에서 건설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헤·후이·종(38)씨가 3년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사업이번창할 경우 이익의 1%를 佛事에 바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위해 이같이 많은 돈을 시주했다는것。 【AFP】



◇뉴욕의 19세기 再現 뉴욕 시민들이 브루클린橋준공 1백주년을축하하기 위해 24일 19세기의 운송수단인포장마차 말자전거등을 타고 밴드에 맞춰 1.8㎞에 이르는 다리위를 행진하고있다. 【뉴욕25日UPI聯合=聯合】

로크 前越南수상 大脫走성공

共產治下 탈출기도 14번만에

공산베트남정권치하에서 억눌려 살아온 구엔반로크前월남수상이 탈출을 시도한지 14번만에야 비로소 성공、싱가포르로 탈출했다。

사이공이 越盟軍에 함락된 지난75년4월이래 親美정부의 고위관리였다하여 온갖 고초를 다겪으며 5년여동안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었던 로크씨는 80년6월 수용소에서 풀려난뒤 신분증명서를 위조하여 남부해안도시로 거처를 옮[illegible] 【UPI】

韓·英修交1백주년 기념마크制定 발표

韓英修交 1백주년 기념사업회는 25일 영국국기인 복판에 태극마크가담긴 韓英수교 1백주년 기념마크를 제정, 발표 했다。

이마크는 韓英 수교기념 각종행사에 자유로이 사용될수있다。

중견공무원 先進國현장파견

사회복지 증진등 해외경험습득토록

정부는 先進國현장에 정부기관의 과장및 사무관급 中堅공무원과 사업관서의 부장및 과장급을 파견、先進경험과 지식을 습득케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30일 제1陣으로 中堅공무원 45명을 1~2개월간 해외 先進各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파견기간중 ▲선진경제질서의 정착 ▲사회복지 증진 ▲행정능률화및 예산절감 ▲기술개발과 人力양성등에 관한 선진경험을 습득케된다。

교통·체신懸案보고

국회交遞委는 25일상오 간담회를 열고 崔順達체신부장관으로부터 우편요금인상에관해、崔珽德철도청장으로부터 최근의 城北驛열차사고에 관해 각각보고를 들었다。

內外動靜

▲高在清 국회부의장은 약10일간의 예정으로 日本정계를 돌아보기위해 25일상오 渡日했다。

政局往來

"與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合理的 방안이라면 언제든 귀기울여야"

財界 學界등이 대부분

民正黨은 25일 오는 30일의 중앙위전체회의에서 3천80명의 중앙위원중 선출될 20개 分科委의 부위원장 1백명과 1백명의 운영위원및 20명의 幹事등 2백20명의명단을발표。

이날 확정된 중앙위 부위원장과 운영위원등은 財力있는 기업인들이거나 교수、의사、기업체간부등이 대부분。 특히 부위원장중에는 任斗彬변호사、禹在昇세계반공연맹사무총장、馬容海 雙龍회장、鄭在德국제종합건설대표、閔忠植전韓電사장、趙南煜 三扶土建사장、韓甲振영화제작자협회장、金鍾學중앙대교수、劉鍾烈경희대교수、李龍萬중앙투자금융사장、申幸植 全經聯전무、빌런트 李純才、성우高恩晶씨등이 포함。

또 운영위원으로는 林政秀 지구레코드사장、金晟集 KOC위원、金立三 전全經聯부회장、무용가 金白峰씨、姜淳元변호사、李曉教 정우엔지니어링대표등이 들어있다。

서울市政에 많은 지적

25일상오 H호텔에서 열린 民正黨의 서울시출신의원들과 金聖培시장 具本錫교육감 朴培根市警국장등과의懇談에서는서울市政에 관한여러가지정과注文이續出。

특히 李世基의원은『江北도심지역 학교를 江南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일부私學이 도심지 校舍를 팔고 변두리로 이전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데 그現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鄭男의원은 『신설학교 進入路를 준공과 동시에 포장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해달라』고 注文。

이날 간담회가 끝난뒤 李台燮서울시支部위원장은『當面한모든 市政現況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위해 시장이외에 교육감과 시경국장까지불렀다』고 배경을 설명하고『앞으로 이런모임을 자주갖도록 하겠다』고 豫告。

총무들 접촉 지켜보자

25일상오 黨舍에나온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총재실에서 李泰九·辛相佑부총재 金承穆 鄭圭憲 孫世一 金文元 李義水의원등과 黨內外문제에관해 한동안논의。

柳총재는 이에 앞서 上道洞자택에서 柳漢烈총장으로부터 對與접촉경위에관한 설명을들었는데 柳총장은『權翊鉉民正黨총장이우선 與野총무들 접촉의 추이를 지켜보자고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林鍾基총무는 이날상오국회에서 총무회담을 대기하면서『모든문제는 정당과 국회의 활성화를통해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정부·여당은 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합리적인방안이라면언제든귀를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

국민총무가 연기전달

25일상오 10시 열릴 예정이던 3黨의 총무회담은 民正黨측 사정으로 상오에서 하오로 늦춰졌다가 다시 26일로 연기되었으나 결국 무기연기로 결말。

民正黨은 이날상오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등 당직자들이정부측과조찬을 겸한 협의를 하느라 당초 약속된 10시예정을 지킬수 없을것같다고 국회에서기다리던 林鍾基民韓黨총무에게 전달。

그후 1시간이 지난 상오11시25분께 李東鎭국민당총무가 林총무를 찾아 잠시 密談을 나눴는데 이때 李총무는『오늘은 총무회담을할수 없을것 같으니 내일로미루자』는 李民正총무의 제의를전달한것。

林民韓총무는 李국민총무와 얘기를 끝낸뒤『내방에 기자들이많아 李民正총무가 李국민총무를통해 연락한것같다』면서『수습을 잘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일 10시 총무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연기를 발표。

한편 李民正총무는 이날 汝矣島 의사당이나 民正黨 당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날 하오 늦게 나타나 총무회담을 할필요가 없어졌다고 발표。

통일위한 側面지원을

李範錫외무장관은 25일 母國을 방문중인 歸化한 在日동포들의모임인 成和會간부 20여명의 예방을받고『여러분은 개인 사정에따라 일본에 귀화했겠지만 조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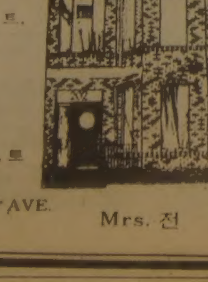
李장관은 이 자리에서『나자신 지난60년대 재일동포 北送저지를 위한 韓日협상의 한국측 실무자로 일한적이있다』고 회고했는데 이에 모모이·요시쓰구(桃井雅次) 회장은『최근 北送된 동포들의 소식을 들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북한으로 간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는것 같더라』고 傳言。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0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Plaza, Income $32만 Net, Net, Asking $3백만, D.P. $50만, (대지 5.3 에이커)
▲Plaza(시외), Income $28만9천 Net, Net, Asking $2백50만, D.P. $40만, 투자액에 대한 14% 수입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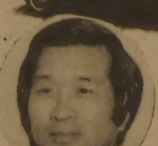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으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의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交通질서 너무 안지킨다

해마다 느는 事故… 그 무서운 實態

전국 64만臺, 年사고 14만件

1만臺當 美3·3 日2·1명, 한국58명 희생

보행자피해가 63%나 차지

어느 한가지 사고로 매일같이 17명이 숨지고 3백58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벌어진다면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수 없을것이다.

다행히 그런 피해가 단일 사고에서 빚어지는것이 아니라는점에서 충격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숫자의 인명이 날마다 피해를 당하고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치안본부가 조사한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고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살아오고있으며 改善을 하지못하고 있는가를 알게되니 부끄러워진다.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차량이 늘어나는것은 불가피하나 우리의 교통사정이 정비례로 갈수록 나빠지고있다.

지난 72년 우리나라에는 15만35대의 차량이 있었으나 10년만인 82년엔 4·3배가 넘는 64만6천9백96대로 늘어났다. 이기간중 사고는 4만3천7백51건이 14만1천2백18건으로 늘어 3배이상을 기록했다.

차량증가율만큼 사고는 늘지않았다고 자위할는지 모르나 10년만에 3배나 증가한 사고건수는 엄청난것이며 사고로인한 인명피해가 세계어느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을안다면 교통사고로인한 인명살상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수밖에 없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만 비교해도 미국은 3·3명, 서독 5·3명, 영국 3·5명, 이탈리아가 4·5명이고 우리와 교통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2·1명인데 비해 우리의경우 지난해 58명이나 됐다.

이숫자는 10년전인 72년의 2백5명이라는 현격히 줄어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예 비교할수없는 창피스러운 통계일수밖에 없다.

이러한 후진성은 1일평균 사상자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서도 엿보인다. 지난 70년에 1일평균 8·4명이 숨지고 1백17·3명이 부상을입었던 것이 75년에는 10·4명이 죽고 1백68·7명이 부상, 82년에는 16·7명 사망에 3백57·8명부상으로 해마다 껑충뛰어 어떻게보면 교통행정의 부재는 물론 국민전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이러한 사고의 다발은 한마디로 법규를 지키지않는 준법정신의 결여에서비롯된다.

통계로는 지난해 전체사고의 93·4%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6·5%, 나머지는 자동차의 정비불량이었다.

법규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가장 많은것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전체의 21·8%, 다음이운전부주의18·5%, 안전거리미확보 12·3%의 순이다. 그러나 음주운전도 늘어나 이로인한 사고가 2천7백17건이나 돼 사망자 2백22명을 냈고 2천3백21명을 부상당하게했다.

이밖에도 중앙선침범으로 4백46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면허운전자가 3백8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살인을 하려는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비판받을수있는 법규위반 말고도 과로운전 신호위반 추월등으로도 많은 목숨이 희생당했다. 또 최근엔 마이카붐과함께 초보운전자가 미숙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것도 3천6백31건으로 1백49명이 숨지고 3천3백9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내용중 부끄러운 부분은 무엇보다 피해자가어린이에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사망자중 6세이하는 모두 7백71명이 숨지고 7천3백3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10세는 3백59명사망 6천8백86명 부상이었다. 14세이하 어린이는 모두 전체사망자의23·6%를 차지하고있으나 각 연령층에서 6세미만이 가장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운전자의 무지한규칙위반행위와함께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인구에대한 대비책 특히 6세미만 소아에대한 부모의 보호가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할길이 없는것이다.

더우기 한탄스러운 일은 외국의경우 자동차사고가 나면 차에탄 운전자나 승객이 주로 피해를입는것과는달리 우리나라는 길을가던 행인이 더많이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중에 보행자는 3천8백75명으로 63·4%, 차에 탄 사람 36·6%보다 2배나 많은 수였다. 부상자역시 보행자가 전체의 53·8%로 차에 탄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차량의 대부분이 복잡한 도시지역을 운행하고있다는 특성을 말해주고있지만 그에 앞서 운전자나 보행자나 교통법규를 지키지않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풀이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사고가 난 지점을 보아도 분명해지는데 횡단보도나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가 위험한 비탈길이나 커브길, 교량등에서 일어난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결국 사고가 많다는것은 법규위반자가많다는등식이 성립한다.

경찰의통계로 나타난 위반차량 단속 건수만 보아도 지난 72년 66만8천4백80건을 적발했으나 10년뒤인 82년엔 2백35만5천5백30건으로 3·5배가 늘어났다. 또 보행자 위반사항도 전국에서 99만5천8백여건이나 적발됐는데 모두 차도를 무단횡단했거나 육교밑을 횡단, 신호를 지키지않아 적발됐다.

통계 숫자로 보면 격미하지만 자동차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간과할수 없다.

지난해 정비불량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진것은 1백22건. 그러나 대형버스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경우 정비가소홀하면 대형피해를 낸다. 사례를 대별하면 브레이크 파이프고장등 제동장치와 액슬샤후더등 주행장치 그리고 조향장치등으로 구분되지만 이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부분은 역시 제동장치 정비불량, 전체 정비불량의 73%를 차지한다.

정비는물론 운전자가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겠지만 치안본부가 분석한 차량메이커별로 보면 H社제품이 27·9%를 차지하고 S社제품 20%, A社가 6%를 차지한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 못지않게 재산피해도 늘어만간다.

지난72년 전체 재산손실은 7억1천2백12만8천원이었으나 10년뒤인 82년엔 18배가 상승, 1백31억7천2백38만원으로 집계됐다.

액수는 늘었지만 피해품이 주로 자동차 자체이고 다른 건물이나 도로 교량피해가 포함돼 일반의 감각으로는 특별한 관심을끌수없는게 사실이지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더우기 사상자에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등 재산손실의 차원에서 본다면 교통사고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것이된다.

한국자동차보험에의하면 사망보험금이 80년 평균8백30만원이었으나 82년엔 1천1백97만원으로 늘었고 부상보험금도 80년1백14만4천원이던 것이 82년엔 1백7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매년 평균 보험금이 44%가량 늘어나고 있다는것이다. 81년 한국자동차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1천4백55억원, 하루 평균 4억원이나되는 돈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라진다고 볼수있다.

이같은 교통사고의 증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전체차량보유수가 늘어나는데비해 도로율이나 교통안전시설이 뒤따르지못해 어쩔수없다고말한다.

교통여건 말고도 운수업체의 경영기반이 허약해운전사의 근로조건이나빠 과로운전과 노후차량을 없앨수 없다는 지적도나온다.

72년 15만대이던 자동차가 10년뒤인 82년 4·3배가 늘어난 64만6천9백여대가 됐다. 그에 비해 도로는 4만2천8백여㎞가 5만3천9백여㎞로 불과 1·2배가량 늘어났을 뿐이다.

도로 길이도 교통여건을 한마디로 단정할수는 없지만 차량증가에 도로사정이 못미치는 것은 분명한만큼 당분간 밝은전망이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다. 더우기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이 비좁은 도시지역에 더 집중할것으로 예상돼 문제는 심각해지고있다.

치안본부는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늘리는데 노력하고있다. 보다 식별하기 쉬운 표지판으로 바꾸고 또 표시판자체를수적으로늘려 운전자의편의를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고원인은 운전자의과실과 보행자의 부주의에있다. 아무리 좋은 안전시설과 높은 도로율을 갖고있다해도 법규를 지키려는 자세가없이는 사고는줄일수 없다.

대형사고는 날때마다 지적되는 일이지만 교통안전에대한 국민적 교육, 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위해 강력한시책이 세워져야한다. 동시에 보행자도 질서를 지키는것은 남의 편의가 아닌 바로 자신의 목숨을위한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裵琪哲기자】

◇아쉬운運轉者의 자질 우리나라는 차량숫자에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지만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율이 높은게 더큰 특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질과 질서의식을 높일수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메아리

말 듣기

이런 퀴즈가 있다.

귀먹은 사람과 눈먼 사람의 책읽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귀먹은 사람은 시력이 온전하고, 눈먼 사람은 청력이 온전하다면.

당연히 귀먹은사람쪽이 빠를것 같다. 눈먼사람은 눈 아닌 손끝으로 점자를 짚어나가야 하는데 비해, 귀먹은 사람은 밝은 눈으로 책을 볼수있기때문에.

그러나 정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 퀴즈가 아니다. 책을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에서, 눈먼사람이 귀먹은 사람을 훨씬 앞지른다는 것이 이 퀴즈의 정답이 된다.

이같은 답을 이끌어낸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눈먼 사람은 정상인과 거의 비슷하게 1분에 3백단어를 점자로 읽고 이해한다. 그러나 귀먹은 사람은 같은 양을 보아나갈수는 있어도 이해하는 속도는 그를 따르지못한다. 이해하는 속도를 측정한결과 고3인 귀먹은 학생의 독서속도는 국민학교 4년생인 정상 학생의 독서속도와 비슷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말할때의 말」(口語)「글로 쓸때의 말」(文語)의 관계로 까닭을 설명한다. 사람은 글을 읽을때, 글을 톤과 리듬, 억양이 있는 口語형태로 바꾸어 머리에 새기게 되는데, 귀먹은 사람의 경우는 글을 소리로 바꿀수가 없고, 口語자체를 알지 못하기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없다는 것이다.

또한가지 조사결과가 있다.

시각과 청각은 어느 쪽이 호소력이 강한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것은 어느 쪽인가? 과연 百聞不如一見인가, 아니면 百見不如一聞인가?

해답은, 이 조사결과를 게재한 한 廣告전문誌에 의하면, 단연 「청각」쪽이다.

실험실적인 조사에서, 인간이 눈으로 보아서 기억한 영상메모리는 1~2초안에 빨리 소멸되는 특징을 보인데 대해, 귀로 들어서 기억한 음향메모리는 4~5초 동안 서서히 소멸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빛에 대한 반응속도와 소리에대한 반응속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빛에 대한 반응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요컨대 보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다—百見不如一聞이라는 풀이가 된다.

이상의 두가지 조사결과에서 유추할수있는 공통된 진리는, 역시 「듣는 것이 중요하다」이다. 그런데 이때의 「듣는 것」은 거의 언어의 형태를 갖는다.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수있는 사람이라야 글 읽는 속도도 빠르고, 눈으로 보는 그림보다는 귀로 듣는 말이 더 기억에 오래남는다는식이다.

귀가 열려있어야 듣고, 들어야 말의 힘을 안다. 귀가 닫힌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보다도 더욱더 답답하다.

鄭達泳 【編輯委員】

말—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하이데거의 정의로는 말이란 「존재의 집」이다. 우리 속담으로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은 「해야 말」이다. 유통되어야 비로소 말 구실을 한다.

말에도 길이 있어서, 말의 正道가 막히면 말의 邪道가 생긴다고 한다. 말이 공급되지않으면 말을 마구 만들어내는 긴급수요의 장이 선다. 그것이 流言이고 蜚語다.

詩人은 詩의 行間에 말을 숨긴다. 숨김없이 내뱉은 말보다는 숨어있는 말들의 메타포가 詩人의 匕首다. 호프만슈탈의 표현대로, 「주먹처럼 때리는 말들이 있다. 그러나 또한 그대가 낚시밥처럼 삼키고도 깨닫지 못하고 헤엄쳐가는 그러한 말들도있다」.

요며칠 신문을보면서 맹인과 농아의 책읽는 속도를 생각한 것은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의 중요성때문이다. 시각보다 청각이 임팩트가 강하다고 할때, 「듣게하는 일」과 「말하게하는 일」은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대화가 있기 때문일세. 우리는 서로 서로의 말을 듣고 있네」

대화를 통한 존재의 확인, 그것이 사람이라고 詩人 휠더틀린은 이야기한다. 남의 말을 들어야만 내가살고, 우리가 살고, 사회가 산다는 것이 行間에 숨은 말이다.

記者의 눈

꿈나무 잔치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礎石이요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매년 5월이되면 싱그러운 하늘아래 어린새싹들이 한데 모여 『푸른산 푸른하늘 모두 우리차지다』『푸른들 푸른바다 모두 우리 차지다』며 힘찬 합성을 울린다. 소년체전이다.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서 한국을 양어깨에 짊어질 꿈나무들을 가꾸고 기르는데도 큰뜻이있는 행사이다. 25일 폐막된 금년 全州소년체전도 각종목서 미래의 한국스포츠 주역들을 대거 발굴,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보람을 안겨주었다.

신기록 내용만해도 한국신1, 대회신기록2백58(작년1백79) 대회타이기록 34개 (작년13)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5관왕이 1명, 4관왕이 7명이나되는 큰수확을 거두었다.

대한체육회도 국가적인 大事를 앞두고 소년체전서 발굴된 꿈나무들이 구김살없이자라고 연습할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팀을 도입, 더욱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

12회를 거듭하는 동안 소년체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순수한 어린이들의 잔치는참가시·도간의 과열득점경쟁으로 추태를 보이기도 했고 부정선수 시비가끄리를 물기도 했다. 「섬개구리 만세」라는 제목으로 떠들썩했던 국교농구 사치分校의경우도 나이때문에 시비가 좀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금년 全州소년체전에는 부정선수나 소청시비가 한건도 없었고 경기장폭력도 거의 없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년체전은 순수한 어린이들의 체전으로 본궤도로접어들고 있다. 26개종목에걸쳐 향토의 명예를걸고 힘과 技를 마음껏 발휘한 어린이들은 내년濟州에서 만날것을 다시기약했다.

앞으로 소년체전은 어른들이 펼치는 득점경쟁의 광장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잔치, 한국스포츠 미래의 주역들을 발굴하는 産室구실을 해야할것으로 보인다. 어린 꿈나무들이여 무럭무럭 자라다오. 【全州=閔炳宅체육부기자】

世界의 社說

나까소네首相 政策 방향

●日 저팬·타임스 24일字

나까소네·야스히로 (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경제운용의 5대원칙으로 自由·調和·平和·풍요및 會선수법을 제시했다.

자유와 조화는 미국및 영국의 현정부지도층이 경제·재정정책경험을 소개하는데있어 두차례에 걸쳐 제시한 근본원리와 매우흡사한것으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세번째 원칙인 평화는 국제협조주의를의미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다른것보다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은 나까소네수상이 파멸적이고 값비싼 무기체제를 유지 확충하는데 쓰이는 막대한 물자를 생산적목적으로 轉用하기위한 방도로서 무기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는점이다.

나까소네수상의 경제정책지침들중 가장독특한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대처首相 2次집권가능

●美워싱턴·포스트24일字

예상밖의승리로 집권한영국보수당의 마거리트·대처 수상은 집권하자마자 정부예산을 삭감하는등 대내적으로 새로운 긴축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단호한 외교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대처수상의 이같은 정책들에 힘입어 영국의 인플레율은 상당히 둔화돼가고있으나 失業率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민간경제부문에서 성장의 기미가 아직 눈에 띄게나타나지않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대처수상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수당은 오는 6월9일의 총선에서 승리, 대처수상의 2차집권이 가능하리라는게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결국 대처수상이 지난3월의 서독基民黨 승리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둘경우 이는 高失業시대에서 우익정당들이 승리를 거둘수없다는 전통적 관례를 깨뜨리는 결과가 된것이다.

유럽강타한 디옥신가스

●英가디언 24일字

디옥신은 地表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물이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76년 이탈리아세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잘 말해주었다. 그 때 화학약품공장이 폭발해서 극소량이 유출되었는데도 공장주변 주민과 가축및 생태계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었다.

8개월전 이 유독가스 7온스가 유럽심장부에서 없어졌다. 디옥신이라면 같은 분량의 시아나미드보다 15만배나 毒性이 강하다. 이 독극물이 프랑스 북부의 도살장유적지에 얼핏보아서는 눈에 띄지 않게 버려져 있다가 며칠전 회수되었다.

만일 서베소같은 사건을 겪고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유럽공동체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독극폐기물 처리에 관해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문제가 더 악화되기전에 말이다.

유럽겨냥한 蘇으름장

●美월·스트리트 저널 24일字

상대방을 위협하고 나오는 것은 소련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SS-20 미사일을 유럽을 겨냥해 배치한 소련은 소련만이 유럽을 보호해 줄수 있다고 으름장이다. 유럽을 공격하지 않는것이 유럽을 보호해 주는 일 이라는 것이다.

한술 더떠 소련은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결코 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인들에게 겁을 주자는 소련의 술책이다. 그러나 소련은 엘살바도르 하나 조차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얼마만큼 제역할을 잘해내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미국국민과 의회가 소련이 획책하고 있는 위험한 장난의 본질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군축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연말부터 신형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이 계획대로 미사일배치를 강행하려할 경우 소련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손실을 생각하게 될것이다. 이점이 바로 우리가 소련에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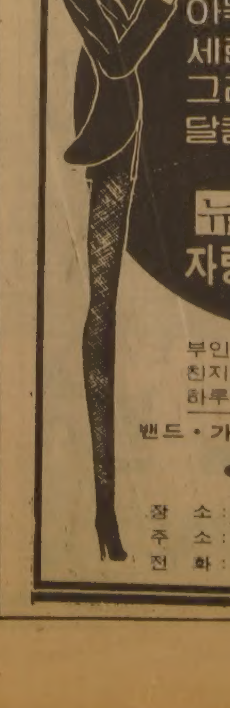
사하로프抑留 진짜이유

●美선데이·텔리그라프 21일字

경찰국가 소련당국을 상대로 반체제운동의 상징으로 손꼽혀온 과학자 사하로프박사에게 어느때가 해외이주허가가 날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소련당국은 마침내 이추측에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짤막한 당국성명에 의하면 사하로프한테는 결코 소련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이라고한다. 사하로프가소련의核탄제조에관한정보를 너무나많이 알고 있다는점이 그이유로 제시되고있다. 그런류의 작업에서, 사하로프가 손을뗀지 여러해가 지났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않는다.

물론 진짜 이유는 사하로프가 너무비중이 큰 반체제인물이라는데있다. 그때문에 소련당국은 사하로프라는 인물자체가 정치폭탄이라고 보고 지금처럼 고르키에서 국내流配로놓아두는것이 그가지닌 폭발성을 서서히 분해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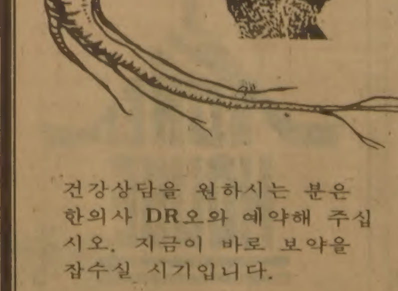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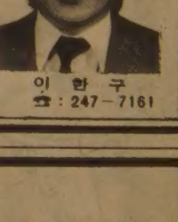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한구
☎: 247-7161

1575 WESTON RD.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광사
지도법사: 석광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鋼鐵한국」…先進시대로

浦鐵확장 마무리로 본 鐵鋼산업의 總計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 중화학공업이라는 점에서, 또 일상용품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라는점에서 흔히 물에 비유되거나 산업의 쌀로 비유되고있다。

들은 일상생활속에서 별로의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근이 나게되면 불편하고 불쾌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된다。

가뭄이라도 들어 급수가 제한되면 그피해가 막대함은 말할것도 없다。

쇠도 마찬가지이다。

태고적부터 익숙하게 사용되고있어 일상생활에서 그필요성이별로 의식되고 있지않다。

그러나 쇠의 공급부족사태가빚어지면 산업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국을 가져올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강은 자동차 기계 조선 광업 건설등 중요산업의 기자재로 사용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철 못 철사 스크류 빌레트 학코일 와이어로프 강관 제관 캐비닛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등 일상생활용품의 중간재를공급、사용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철강산업은 국력의 척도가 되는 국위산업이다。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중진국은 중진국대로 철강산업육성에 역점을두고 있다。

浦項綜合製鐵의 확장공사준공은 浦鐵자체의 생산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도 우리나라가 선진철강국으로보다 가깝게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69년 浦鐵이 착공、처음 제철소 건설계획을 세웠을때만해도 선진국들은 별다른 관심조차 나타내지않았었다。

IBRD(세계은행)가 타당성조사보고서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국제차관단인 KISA가 해체되기도했다。

浦鐵은 이에 굴치않고 73년 1백3만2천톤의 제철공장을 세운후 확장공사를 거듭해 왔으며 마침내 한국은 10년남짓한 짧은 기간동안에 중진 철강국의 우등생으로 부상하게 된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권위기관으로 자부하고있는 IBRD는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오판을 한셈이 돼버렸다。

浦鐵은 76년에 2백60만톤、80년에 5백50만톤、82년에 8백50만톤으로 생산설비를 늘렸고 이번 4차 2기공사 준공으로 연산 9백만톤에 달하게 됐다。

단위제철공장으로서 浦鐵은 전세계에서 11위、자유세계에서 8위의 대단위 一貫제철공장으로 성장했다。

이번 확장공사준공은 高爐의신설없이 설비의 일부추가및 보완으로 생산규모를 8백50만톤에서 9백만톤으로 증가시켜 생산량증대、고급강종의 확대、생산원가의 절감등 높은 투자효율을 기대할수 있게됐다。

최근 케임브리지대학 코커릴교수의 연구에의하면 一貫제철 공장규모는 조강생산 8백만톤에서 1천만톤까지가 생산비체감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적정규모라고 보고있다。

浦鐵의 현생산규모는 경제성에서 최적화되어있다고 볼수있다。

제철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거대한 물량이 간단없이 흐르는 공정이다。

공정을 분담하고있는 개개의단위설비는 독자적인기능 제고는물론 다른 설비와의 유기적인 연결기능이 매우 중요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浦鐵은 최신설비인데다 선공정과 후공정간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설을 갖추고있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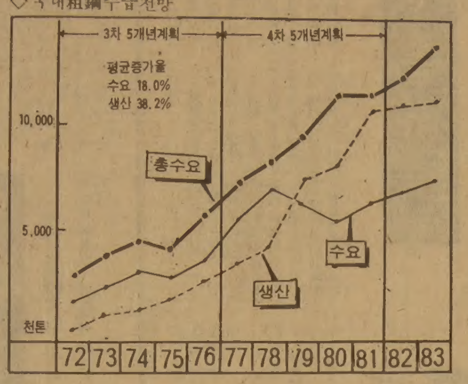
조업초년도부터 흑자를 실현한 浦鐵의 조업실적은 그뒤 흑자경영의 견인차 역할을해왔다。

경기동향에 구애받지않고 거의 풀가동을 유지、83년 4월말현재 총 출선량 3천9백47만4천톤을 비롯하여 총출강량 4천3백1만6천톤、철강재 생산량 3천2백83만 5천톤을 기록하고 있다。

浦鐵은 앞으로 철강재 수요가 계속 늘어난것에 대비、제2제철공장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浦項에는 증설할 공장부지가없어 全南 光陽灣에 연산2백30만톤규모의 光陽제철소를 85년에착공、8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공장이 완공되면 浦鐵은 1社2所체제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가져오게되고 다품종 소량생산및 소품목 다량생산체제를 분담하여 국내 철강자급도의 향상과 아울러 고급鋼 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게된다。



◇국내粗鋼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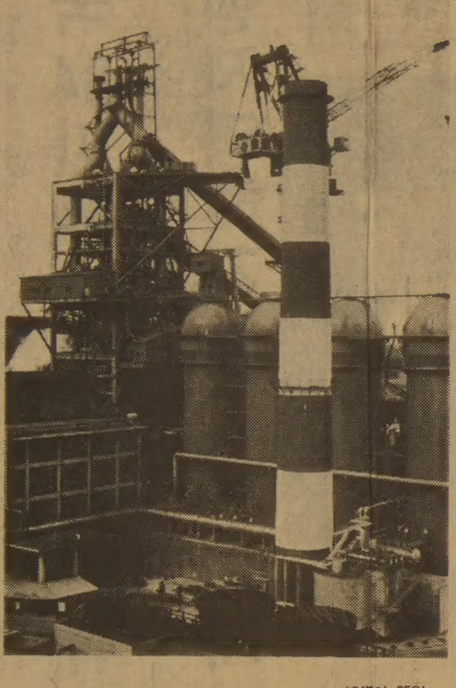
浦鐵은 光陽제철소건설에 소요되는 내외자 23억달러중 18억달러상당의 내자를 자체적립금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만큼 社內 유보금이 많다는 것인데 이로인해 판매가격이 과연 적정하느냐는 논란도 일고있다。

기초소재를 생산해내고있는 浦鐵이 이익을 보고있는만큼 이소재를 사용하고있는 관련산업의원가는 높을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設備보완으로 50萬톤 증산

國力상징… 고도成長 牽引力



◇준공된 4期 2次高爐 浦鐵이 25일 준공한 4期2次高爐。

이같은 생산능력의 제고로 한국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더욱 앞지르게 됐다。

한국과 북한의 철강생산능력은 해방이후 북한이 앞질렀으나 浦鐵의 2기설비가 본격가동된 77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4기설비가 완공된 81년에는 한국이 북한을 2배이상능가했으며 이제 그격차는 더욱 크게벌어지게됐고 기술수준등도 현격한우위를 확보케되었다。

◇國力의 원동력으로 高準植浦鐵사장과 全啓默 상공부기초공업국장등 관계자들이 25일 浦鐵 4期 2次공사준공식에서 火入을하고있다。

한국의 철강생산실적은 70년대이후 연평균 20%씩 늘어난 浦鐵의 급성장에 힘입어 이제는 연간 1천3백60만톤에 달해 지난76년 세계26위에서 이제 1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浦鐵의 9백만톤과 전기로업체의 생산능력 4백60만톤을포함、모두 1천3백60만톤이다。작년엔 1천1백75만8천톤으로 세계생산량의 1·86%를 차지、세계15위 생산국이 됐으며 수출도 세계철강 총수출량의 4·9%를차지했다。

작년도 강재의 내수는 6백91만8천톤으로 81년에 비해 0·6%의 증가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이 5·4%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했던것은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에 주로 기여했기때문이다。

鋼種別로 보면 철근、형강·봉강 線材등 條鋼類의 내수는 81년대비、11·9%인 3백23만9천톤이었는데 주로 건축경기가 비교적 활발했던데 기인되고 있다。

熱延鋼板、冷延板、강관등의 板材類는 81년에 비해 16·4%가감소한 2백81만5천톤이었다。

이부분의 수요감소는 일반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이 부진한 탓이다。

한국의 철강축적량은 일본의10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실적은 82년에 25억달러어치인 5백33만1천톤으로 81년에 비해 20·9%가 늘어났다。

주요품목별로 보면 판재류와형강이 주도했으며 강관、주단조제품、와이어로프등은 주시장인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학코일은 일본、대만의 덤핑으로 타격을받았다。

操業初부터 흑자…항상 풀稼動

國際시장 供給부족…輸出 유리

앞으로 국내외 수요전망을 감안할때 한국의 철강산업은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우선 내수의경우 1인당 철강소비량은 1백84㎏으로 세계평균 소비량 1백64㎏보다는 웃돌고있으나 선진국이나 같은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중진국에 비해 뒤지고있다。

미국은 6백39㎏、일본 6백37㎏、서독 6백2㎏에 비해 4분의1에 불과하고 대만의 3백54㎏에 비해서도 절반수준이다。

강종별 내수 소비구조역시 조강류 판재류 주단강류가 47·41·12로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은 수송장비인 자동차 조선 철도차량용 철강재가 가장많이 소비되고있고 금속공업건설 일반기기 전기기기순인데 비해 후진국들은 건설용 철강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소비구성은 ▲건설 46·5% 금속 공업 27·0% 수송장비 13·0%인데 반해 미국은 ▲수송장비 39·4% 건설30·9% 금속공업 15·5%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발달단계로 보거나 국민소득수준으로 보면 철강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재수급전망은 올해에 3백30만톤의 부족이예상되고 85년에 5백70만톤 광양제철소 1기가동을 감안하더라도 91년엔 무려 9백만톤이상이나 부족할것으로 되어있다。

이공급부족은 올해에 6백90만톤、85년에 5백50만톤、91년에 7백80만톤의 물량의수출을 감안한 것이다。수출면에서도 지속적인 신장이 기대되고있다。

세계의 철강생산설비는 약8억톤정도로 추정되고있으나 실질생산능력은 7억톤수준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미국의 설비능력은 1억5천만톤에달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업능력은 훨씬 미달되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5년후에는 경쟁력 있는 생산능력은 1억톤에 불과하다는 것。

OECD의 유효 생산능력은2억톤 정도이다。실제로 가동할수 있는 능력은 1억6천만톤정도。

日本의 경우도 1억4천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설비자체가 更新期에 들어가 재투자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실질생산능력은 크게줄어들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요 생산국이래야 한국·대만·브라질 등이다。

개도국들이 철강생산설비 신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85년까지 7천5백만톤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사정때문이다。

60년대 제철소건설의 단가는 톤당 3백50달러이었던것이 오일쇼크이후 1천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숙련노동력의 부족이다。

새로운 설비를 어느정도 조업을 하기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숙련기능공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기능공 양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된다。

숙련기능공이 없이는 가동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석유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있고 금리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경기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있다。

공업생산의 회복으로 철강소비도 증가하게된다。

선진국과 공산권의 철강수요는 자급자족한다고 하더라도 개도국들의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철강공급부족사태가 빚어질것으로 보인다。

철강생산은 다른 메이커와는달리 단기간내 증설을 할수없는만큼 우리나라의 철강수출은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

【趙源永기자】

문제점

高級鋼비율 높이고 原料 안정적확보책 있어야

그러나 국내 철강업계에는 당면과제가 적지않다。

우선 현재 浦鐵등이 생산하고있는 선철 강철등 철강재는 강도가 낮은 보통강위주로 되어있다。

소위 특수강으로 불리는 고급강의 생산비율이 선진국에비해、크게 뒤지고있다。

철강은 탄소·규소·만간등의 함유비율에따라 강도가 달라지게된다。

이에 특수원소인 중석·니켈·크롬등을 함유시키면특수강이된다。

이특수강은 極高溫이나 極低溫에 견디는힘이 세고 마모나 침식이 잘안되어 고층빌딩·교량·무기류 생산소재로 사용되고있다。

다시말하면 抗張力이 입방밀리미터당 40㎏、引張强度가 입방밀리미터당 50㎏이상인것이 고급강으로 분류되고있다。

동일한원료를 사용하는데도 선진국은 보통강과 고급강의 비율이 60%대 40%인데 우리나라는 80%대 20%수준에 머물고있다。

특수강의 생산비율이 낮은데다 그나마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한 것으로 분석 되고있다。

시설규모는 일본의 5분의1에 불과하고 조업기술은 일본의 66년 수준이며 1인당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생산기술이 낮다。

모든 부분의 국내철강업체가치수를원단위를 비롯한 조업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50톤짜리 전기로 제강업체의 경우 전극 원단위는 우리나라가 톤당 5·1㎏인데 비해 일본은 톤당 4·3㎏이다。

이밖에 에너지절감을위한 古鐵豫熱·용해기단축 多連鑄掘業등 주요기술에서 크게 열세이다。

세째 시설규모면에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있다。

전기의경우 우리나라는 50톤로이상의 용량이 총설치 基數의20%선에 불과하여 일본의45%수준에비해 규모면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압연설비의경우 업체가 난립되어있으며 5만톤의영세업체가70%선에 달하고 手動式 설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네째 원료는 거의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있어 안정적확보가 시급하다。

철광석、유연탄、고철등은 일부 개발수입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대부분을 장기계약에의해 조달하고있으나 해외시장여건에 따라 원료조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않다。

정부는 장기적인 철강수요증가에 대비、일반제철부문의경우 공급능력의 단계적확장 고급강개발및 생산강종의 확대、연주설비확대등을、전기로부문은 시설의 적정화를기해 신증설을 억제하고업체별·품종별 전문화를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냉연및 강관부문은 86년까지 신증설을 억제하며 특수강부문은 浦鐵·三美特殊鋼·大韓重機등업체별로 전문화시키고 베어링강、스테인리스·학코일강등 주요특수강의 자급화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국일보詩壇

汽車에 올라

柳光烈

汽車타고
湖南線을 달린다
눈길 가득히 봄이 피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듯 서울의 市民이던가。

이제보니'캘린더의 봄은
터널속으로 마지막 빨려드는
汽車의 꼬리일뿐이네。

한짝 배늘어진 보리이삭하며
바쁜 모내기가 여름을 활개짓한다。

논둑에 서성대는 누렁소와
컬컬히 주고받는 농군들의 참술한잔,
다급해서 튀쳐나온 아낙들의 뒤엄질。

모누가 나를 가고프게 하는 것들이다
내 故鄕 山골, 春川의 坪村里 골안。

아아, 서울이 멀어질수록
가까와지느니 故鄕의 마을。

진짜 미식가는
KOREA HOUSE를
애용합니다.

일본요리 취급개시
(생선회·김초밥·생선초밥·회덮밥·돈부리등)
□도시락주문(개인·단체)
□스시바 곧 OPEN.

★최고의 진미
★저렴한 가격

RESTAURANT
코리아 하우스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KOREA HOUSE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학생들 머리깎을곳이 없다

여전한 "이발소 퇴폐"

◇이발관이 크던 작던 다투어 「야릇한 휴식처」가 되다보니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정상이발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團束불구 칸막이·커튼 안사라져 집에서 깎거나 미장원이용 늘어

학생들이 머리를 깎을 이발소가없다。 이발소들이 칸막이에 아가씨를 채용、 서비스를하는 야릇한 휴식처로 다투어바꾸다보니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람이나 학생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정상적인 이발소를 찾기가 어렵게된것。

요즘 이발소는 분위기도이상한데다가 팁까지 합쳐 줄잡아 1만원이 들기때문에 더더구나 학생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발기구를 사다가 아예집에서 깎거나 간단히 머리를 잘라주는것이 가능한 여성용 미장원으로 남학생을보내는 가정도 많다。

이같은 현상은 도심이나 변두리를 가릴것없이 공통인게 특징。

소위 「칸막이 이발소」는 한때 퇴폐업소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 당국의 호된 단속을 받았으나 약간의 실내분위기만 개선했을뿐 조명、칸막이와 커튼、여종업원의 음란서비스행태는 여전하다。 또 이발소편에서는 팁이 없는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꺼리고 있는형편이다。

25일하오 서울江東區城內洞 M이발관。 지난4월 구청으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었지만 실내분위기는 여전하다。 의자2、3개 사이에 칸막이가 되어있고 의자사이에는 짙은 커튼이 드리워있다。 무릎위 20㎝까지 올라가는 초미니 가운을 걸친 여자종업원 4명이 얼굴을 식별할수 없을만큼 어두운 조명아래 손님의 다리부분 마사지에 열중해있다。

이날하오 이곳에 이발을 하러왔던 金모군(16·Y중3년)은 문을열었다가 기겁을하고 달아났다。

江南區狎鷗亭洞상가에있는 K이발소에도 실내분위기는 비슷했다。

이발소의주인 柳모씨(31)는 학생요금은 일반손님요금의 반값인 3천원을 받고 있지만 어쩌다 들어온 학생은 거의 도로 나가버리고 하루에 1명정도 학생의 머리를 깎을까 말까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안에있는 여자전용의 K미용실에는 거꾸로 하루에 남학생들 10여명이 「머리를 깎으러」온다。 미장원 주인은 『마땅한 이발소를 찾지못해 오는것같다』고 말했다。

비교적 변두리지역인 江東區千戶洞 H이발관에 국민학교 3학년 남자어린이를 데리고 들어온 金모씨(38·여·江東區千戶3洞)는 『이발소를 4군데나 돌아다닌 다음에 이곳에 오게됐다』며 『꼬마눈에 이발소의 퇴폐행위가 어떻게 비춰질지몰라 앞으로는 집에서 적당히 깎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비교적 시내중심지에 살고있는 학생들은 더욱 이발하기가 힘들다。 이발소의 실내분위기가 다른곳 보다 더욱 「야릇」하기때문인데 아파트에 살고있는 학부모들은 아예 이발기계를 가정에 장만해놓고 자녀들의머리를 손수깎아주기도한다。

安祥勳 학생주임(50)은 永登浦區汝矣島고등학교 『교복과 두발자유화 이후 학생의 신분을 구별하기가 힘든데 이러한 퇴폐이발소등이 근절되지않는다면 일부학생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위험이크다』고 지적하고 『요금이 적당한 학생전용 이발관이나 서민용실비이발관 구내이발관등이 많이 생겨야할 것』이라고말했다。【韓基奉기자】

趙世衡 징역10년

監護10년도… "不遇한성장 참작"

서울刑事지법

大盜 趙世衡피고인(39)에게 징역10년과 보호감호10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金盛晩부장판사)는 25일 趙피고인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및 특수도주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선고하고 鄭允龍피고인(36)등 관련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4년∼1년씩을 각각선고했다。

趙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걸쳐 유명인사들의 집만을골라 10억7천여 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혐의로 기소돼 재판을받던중 지난4월14일 법원구치감을 탈출했다가 5일만에검거돼 지난2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10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피고인은 장기복역자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워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1회에 걸쳐 10억7천여만원이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절도행각을 벌였다』고지적、『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급급한결과 범죄에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절도를 마치 특수한 형태의 직업인것으로착각、 무비판적으로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피고인의 범죄에 우리는감상적으로만 대처할수없으며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어느정도의 장기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피고인이 인격형성기에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를 받지못해 범죄에 노출돼 성장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수는없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더라도 단순한 절도에 불과하고 범행과정에서 사람에대한 해악은 의식적으로 피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해 정상참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당초 기소한 범죄이외에 공소장에 추가한 ▲특수도주죄 ▲도주후세차례의절도▲추가로 확인된 金俊成 부총리집에서의 유가증권등 5억여원어치의 절취 부분등에대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趙피고인은 이날 상오9시 15분께 수인번호 1618번을단 푸른색 미결수복차림으로맨발에흰고무신을 신고 호송버스로 법원에도착했다。 그는 대기실 에서 개정을 기다리는동안 간간이 「교도관들과 이야기를나누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천장과바닥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눈을감고 생각에잠기는 모습이었다。

상오10시께 법정에 들어선 趙피고인은 재판장이판결문을 낭독하는동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듣고있다가 징역10년과 보호감호10년이 선고되자 뜻밖이라는듯 놀란표정을 지었으며 공판이 끝나자 재판부를향해 공손히 머리를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주문을 낭독하기전 교도관들에게 趙피고인의 수갑과 포승을 모두 풀어주라고 지시한뒤 『판결문이 방대해 요지만 설명하겠다』며 빠른속도로 약 20분간에걸쳐 판결이유와 정상참작을설명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형사지법대법정에는 70여명의 방청객이 참관했으며 교도관 10여명이 법정주변에 특별 경계를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결과에대해 항소할뜻을밝혔다。

本因坊 제2局열려

【東京=宋孝彬특파원】 제38기 本因坊도전7번기 제2국이 25일 일본히로시마에서 趙治勳本因坊과 도전자 林海峰9단간에 열렸다。

이날黑을 쥔 趙本因坊은 실리위주의 포석으로、林9단은 세력위주의 포석으로 맞섰는데 이바둑의 승패는 26일하오 늦게야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상습 강도강간犯 無期징역 선고

【釜山】 강도강간 상습범에게 무기징역이선고됐다。

25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 權光重부장판사는 지난2월1일부터 3월20일사이 50여일동안 다방·찻집등에 침입、 여종업원들을 흉기로 위협한후 1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뺏고 욕까지 보인 曺丁秀피고인(24·부산北區大渚1洞502)에게 특가법·강도·강간죄등을 적용、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의 상습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키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판시했다。【聆】

農學界원로 蔡丙錫박사

●농학계의 원로인 蔡丙錫박사가 25일상오1시 서울恩平區大棗洞74의7 자택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77세。

발인은 27일상오10시 자택、장지는은광교회묘지。 연락처388-0611

사회사업가 韓正教목사

원로 사회사업가 韓正教목사(釜山愛隣園이사장)가 25일상오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87세。발인은 28일상오10시 釜山愛隣유드호스텔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경남梁山郡가족묘지。

5行뉴스

◆揚水機설치하다 感電

【陰城】24일 하오 4시30분께 충북陰城郡 三城面德井里2구382 김영수씨(52)가 집에서 4백m떨어진 논에 물을 대기위해 양수기를 설치、전선을연결한후 자기집 부엌의 가정용전기에 감전돼 숨졌다。【聆】

◆京釜線 열차 10분빨라져

서울∼부산간 새마을열차가 오는7월1일부터 운행시간이 현재 4시간50분에서 4시간40분으로 10분간 단축된다。

또 새마을열차뿐 아니라 경부선 우등및 특급열차를 10분정도 운행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901

洞직원이 電氣등 검침

大邱·大田등5곳 9월부터 公課金 고지서 발부도

경북大邱와 충남大田、서울의江南冠岳、銅雀區등5개지역의 각종공과금고지서 발부、전기·상수도검침등 업무가 오는9월부터 해당 洞직원이 일괄취급케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이들 업무가 각각 서로 다른사람에 의해 집행됐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고 인력낭비의 결과를 빚어왔기 때문에 시정키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5개지역에 대해서는 洞직원이▲방범비▲TV시청료▲오물수거료 고지서를 각수용가에 일괄발부토록 하고 ▲수도▲전기▲도시가스 검침도 한꺼번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鐵器시대유적지 발굴

土器제작·營農방법등 알려

横城郡 屯内里

【横城】 선사인들의 토기제작법 주거형태 곡식갈무리법 영농방법등을 알수있는 초기철기시대 유적지가 강원도 横城郡屯内面屯内里에서 江原大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굴됐다。

조사단은 24일 가로14m 세로10.5m 높이1.5m의 주거지와 이보다 작은 2개소의 주거지등 3개소에서 선사인들의 목걸이였던 직경1㎝∼0.3㎝크기의 청옥、 흙옥으로된 옥구슬13개와 곡식껍질을 벗겨내기위해 사용됐던 갈돌(61㎝×20㎝×15㎝)1점、휴대용 숫돌등21점의 부장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사단은 또 82점의 완제품 무문토기와 김해식토기를 빚거나 구워내던 가마터와 주거지 광(2m×1.9m)에서 곡식갈무리를위해 둘투겹이덮인 7점의 토기항아리가 땅에반쯤묻힌채 원형으로 발굴됐으며 중앙의 안방부분에서 불을지폈던 숯덩어리 30여점과 솥받침 4점、 기둥설치부분 땅바닥에서 처마를 흘러내린 낙숫물흔적 50여곳、 벽을 튼튼하게 발랐던 볏짚섞인 진흙덩어리 수십점도 함께찾아냈다。【聆】

林在琇등 再항소심 세피고인 2회公判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과 관련、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林在琇(52·전조흥은행장)孔德鍾(60·전상업은행장) 金勇男피고인(39·전대화산업비서실차장)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2회공판이 25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永模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李·張사건의 관련 피고인 32명중 29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항소심에서 징역4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林피고인과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孔피고인등 3명만 지난3월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었다。

결심공판은 6월8일。

校內시위 선동혐의 慶熙大生 4명令狀

서울清涼里경찰서는 25일 慶熙大생 李鍾栥(23·기계과4년) 崔埔(21·경제과4년) 金淸石(21·건축과4년)姜先求(21·국문과2년제적)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23일낮 12시50분께 문과대 3층강당에서 반정부내용이담긴 불온유인물 1백여장을 뿌리며 교내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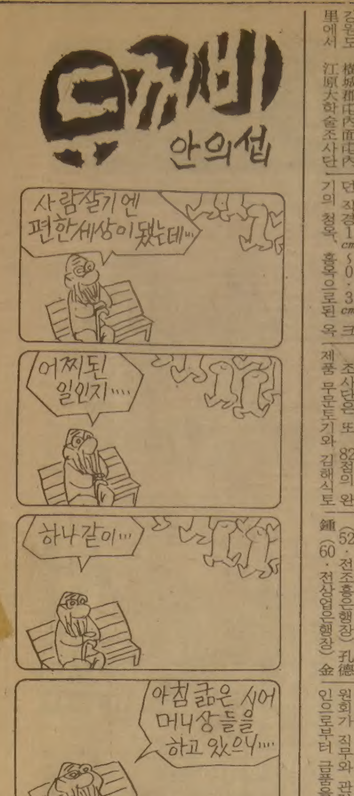
顧客이 맡긴 4천만원流用 證券社지점장 잠적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돈을 유용한채 잠적、증권감독원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독원에 의하면 高麗증권 忠武路지점 지점장 金憲鉉(43)가 지난 17일낮 12시께 회사를 나간뒤 25일 현재 나타나지 않고있다는것。

조사결과 金씨는 지난15일 고객인南모변호사가 지점에 맡긴 4천만원을 유용한것으로 확인됐다。

金씨는 K증권이사로 근무하다 1년전 高麗증권으로 옮겼는데 14년동안 증권업계에서 활동、단골고객이 많다。



非違만으로론 파면못해

돈받은경위·직무태도등 참작돼야

固城郡공무원에 勝訴판결

【大邱】관공서의 인사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금품을받게된 경위와 공무원으로장기간 성실히 직무를수행해온 점등을 참작하지 않고 비위 자체만 가지고 파면조치를 내린것은 징계의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고법특별부(재판장尹永五부장판사)는25일전경남固城郡건설과장직무대리 朴甲鍾씨(경남忠武市 堂洞30의3)가 固城군수를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固城군수는 朴씨에게내린 파면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朴씨는 지난해 3월중순 상오10시30분께 固城邑城內洞 소라다방에서 이마을에 사는 사리채취업자 김화수씨로부터 고성천의 민수용 사리채취허가를 내어달라는 부탁과함께 현금30만원을받은 혐의로 같은해 6월11일 固城郡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처분의 징계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朴씨가 금품을받게된 경위와 이후 금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점및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해온점등을 참작할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생활보장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못하게되는 파면조치를 인사위원회서 내린것은 징계의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란』고 밝혔다。

첫提報者所在수사 반달곰事件

【東草】속보=雪嶽山 반달곰 사건을 수사중인 東草경찰서는 25일 최초제보자의 곰발견 경위를 듣기위해 제보자의 소재수사에나서는 한편 밀렵꾼들의 계보별 동태와 총기소지자중 미등록자에 대한 최근활동상황을 파악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수사방향을 압축하고있다。

경찰이 이같이 3개유형별로 수사의촛점을 좁힌것은 밀렵꾼들의 최근활동과 총기미등록자의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범인의 행적을 알아낼수있다는점과 최초의제보자가 곰이 죽어가는 현장을 알아낼수있었던 경위를 알게되면 수사 열쇠가 풀릴것으로 보기때문이다。【聆】

곰고기 20㎏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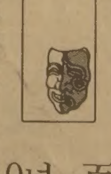
【東草】속보=문화재관리국은 25일 東草市 수협냉동실에보관、일반에 공매할 예정이던 반달곰고기의 식용가능여부를 가리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곰고기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결과에따라 조치하도록 東草市에 지시했다。

東草市는 이에따라 이날 낮12시 5백40g의 곰고기를 떼어 검사를 받기위해 고속버스편으로 서울로 긴급수송했다。

東草市는 이 검사결과에 따라 현재 수협냉동실에보관중인 51㎏의곰고기를 공매할 예정이다。 이 곰고기는 모두 71㎏이었으나 20㎏은부패돼 이미 폐기처분했다。【聆】

「쇠심줄」 再建대원들의 傳道師 文秀影씨

끈질긴 감화 10년…百여명을 敎會로



신앙의 힘으로 용기를 얻어 인생을 새로 설계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이따금 본다。그만큼 신앙은 인간에게 때때로 새로운 힘을 발휘케하는 모양이다。

전도사 文秀影씨(46·사진)는 그녀에게 「쇠심줄」이란 별명까지 얻게해준 신앙의힘에 놀란다。그녀의 일터는 사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쉬운 재건대원들이 모이는 곳이다。그녀는 자그마치 10년동안이나 배타심이 강한 이들 사이를 파고들었고 버티다 못한 재건대원들이 「쇠심줄」이란 별명으로 그녀를 받아들였다。

文씨는 梨大法大를 졸업했다。10여년동안 고시공부를하다 고시 못지않게 불우이웃에게 성령을전하는것도 보람있겠다고 느껴 그의 말처럼 「천국고시」로 방향전환을했다。뒤늦게 성결교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천국고시의 기초를 다졌다。

한때는 陽洞 桃洞일대의 윤락여성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재건대원들에게 눈을 돌렸다。윤락여성들은 같은 여성이라 그런대로 접근하기가 쉬웠으나 재건대원들은 철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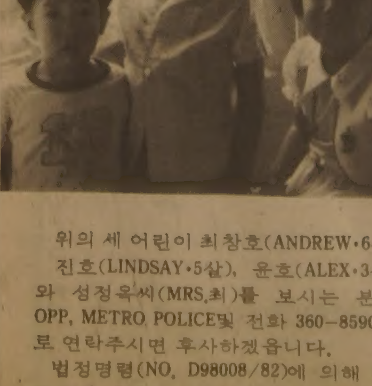
『전도사업을 하러왔다』고 하면 모두가 문전박대。세브란스병원 뒤편에 있던 재건대 南大門6소대를 찾아갔다가 입에 담지못할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물을 끼얹는 곳도 있었다。어떤곳에서는 文씨가 여자라는 점을 이용、대문에 커다란 남자나체사진을 걸어놓거나 예수장이가 온다고 부적을 붙여놓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다。「열번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신념으로 악착같이 매달렸다。차차 한두사람씩 『에이 쇠심줄같은 여자』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었다。성령이 쓰레기더미위에서 꽃을 피웠다고나 할까。

쇠심줄의 신화는 점차 재건대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文씨의 감화로 전도사가 된 재건대원까지 생겼다。2년전부터는 巡和洞 가정집을 빌어 주일마다 1백여명이 모여 예배를 본다。

『불우이웃은 돈뭉치 던져준다해서돕는것이아닙니다。마음이따라주어야합니다』【朴珍利기자】

사람을 찾습니다



위의 세 어린이 최창호(ANDREW·6살) 진호(LINDSAY·5살), 윤호(ALEX·3살)와 성정옥씨(MRS.최)를 보시는 분은 OPP, METRO POLICE및 전화 360-8590으로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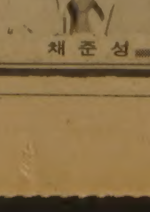
법정명령(NO. D98008/82)에 의해 찾고 있읍니다.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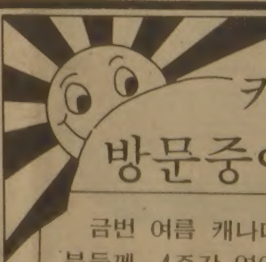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c)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카나다를 방문중이십니까

금번 여름 캐나다를 방문중 분들께, 4주간 영어회화 코스를 마련했읍니다. 친척·친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영어코스 개강일—6월27일
—7월25일
—8월29일

자세한 문의는 923-6947
무료 안내책자를 제공합니다

14 COLLEGE ST. TOR.,
ONT. M5G IK4
☎923-6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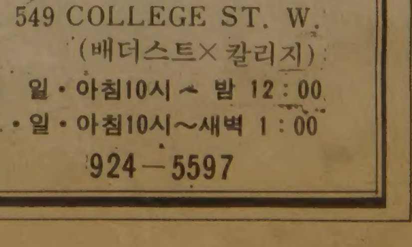
Oriental Recreation Centre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죠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 한국인의 당구대회예약환영
□ 특별봉사



549 COLLEGE ST. W.
(배더스트× 칼리지)
평 일·아침10시∼밤 12:00
토·일·아침10시∼새벽 1:00
924-5597

"88올림픽主役들 든든히 자라고 있구나"

기록大豐

서울 첫 종합우승
2위 전북 3위 충남
소년체전폐막… "내년엔 濟州서 만납시다"

【全州=소년체전취재반】 5일동안 열전을 벌인 제12회 전국소년체전은 서울이 막바지에서 충남을 따돌리고 역전 우승, 대회 첫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25일 폐막됐다.

서울은 대회최종일 구기에서의 우세를 살려 27,084점으로 종합우승했고 전북은 23,938점으로 2위, 충남은 23,470점으로 3위를차지했다.

한편 전북은 성취상 1위, 대구가 2위, 강원도가 3위를 차지했으며, 질서상은 인천시에 돌아갔다.

이번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육상여중8백m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盧惠順(충남 성실여중) 이차지했다.

종합득점제가 부활된 이번 소년체전서는 기록경기 수준이 크게 향상,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2백58개의 수확을 거두었다.

메달레이스서는 서울이 금47、은33、동26개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충남은 금20、은20、동18개로 2위를 마크했다.

◇최우수선수盧惠順

최우수盧惠順

폐회식서 鄭周永대회장은『3백만 전북도민의 단합된의지와 열성으로 원만히 대회를끝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폐회사를통해 말했다.

이날저녁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성화가 꺼지고 올드·랭·사인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내년 제주에서 만날것을 다짐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종합득점

①서울	27,084
②전북	23,938
③충남	23,470
④충북	22,859
⑤전남	21,973
⑥부산	21,861
⑦대구	20,779
⑧경북	17,530
⑨강원	17,411
⑩경남	17,384
⑪경기	13,612
⑫인천	13,610
⑬제주	4,751

◇메달 최종집계

팀	금	은	동
①서울	53	34	28
②충남	22	23	19
③전남	21	20	21
④전북	19	16	19
⑤충북	18	23	24
⑥대구	16	18	36
⑦강원	16	13	26
⑧경북	15	12	16
⑨부산	9	26	28
⑩경남	9	12	26
⑪인천	8	5	9
⑫재일동포	4	1	1
⑬경기	3	4	18
⑭제주	1	1	5

◇배구 여중부 결승전서 인천 영화와 군산중앙이 열전을 벌이고 있다. 【소년체전취재반】

돌아본 熱戰 5일
종합채점제、기록향상 자극… 大會운영 반응좋아

12회 전국소년체전은 경기내용은 물론 대회운영면에서 지난해 보다 진일보했다。종합채점제 부활이 기록향상을 자극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誠實여중 2년생 盧惠順이 육상 여중8백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것은 최대수확으로 꼽힌다。盧의 한국기록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국부 높이뛰기에서 국교최고기록을 세운 白京淑(대구), 남중부 멀리뛰기의 金元珍(충북), 여중멀리뛰기의 李文淑(전북) 등도 유망주로 꼽혔다。

양궁에서도 가능성있는선수가 탄생했다。남중부 任智源(전남), 여국부 金惠蘭(서울), 남국부 李京苗(경남) 등은 金永雲 金珍浩등 국내 남녀양궁의 간판스타들을 뒤이을 재목으로 주목받았다。

역도 중학부의 全炳寬(전북) 도 큰수확이었다。

◇宋貞賢 ◇全炳寬

◇신기록내용(괄호안은 작년)

	한국신	대회신
▲육상	1(0)	55(28)
▲수영		28(5)
▲사이클		70(0)
▲양궁		62(146)
▲역도		43
▲합계	1(0)	258(179)

체조의 宋貞賢(이리국교) 은 이번 체전에서 유일한 5冠王으로 4冠王 李惠蘭(춘천여중) 과 함께 한국체조의 새별로 떠올랐다。

수영에서 金眞淑(서울 강남여중) 趙晟恩(서울신천국교), 金學源(서울강남국교), 崔禎允(서울 봉은국교) 등은 4冠王, 吉東赫(강원소양중), 權于禎(서울 강남여중) 李美愛(서울 숙명여중) 은 각각3개의 금메달을 차지, 눈길을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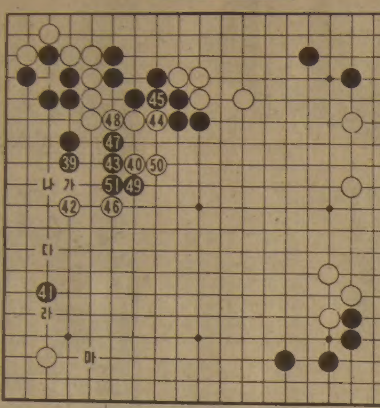
이런 유망주들을 더욱 다듬는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소년체전 국교배구선수로는 최장신인 金敬植(인천부평남국·1m72) 도 오랜만의 大魚로 주목을받았다。

이번체전에서 가장큰 변모는 개회식의 선수입장。양팔을 90도나들어올리며 딱딱하게입장하던것을 자연스런 걸음걸이로 바꾸었다。처음 시도된 성취상과 질서상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내체전사상 처음도입한 스포츠상해보험도 계속존속되어야할 제도다。 【소년체전취재반】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3譜 39~51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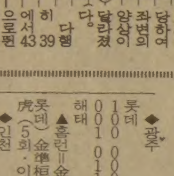
白(5段) 姜 勳〈2勝2敗〉
黑(6段) 張 秀 英〈4勝0敗〉

黑39는 白「가」하는 급소일격을 사전에 봉쇄한 수단인데 같은 값이면 그「가」자리 혹은 黑「나」의 日字가 어떨까。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의 생각이다。전문가는 좌상白마공격의 맛이 강한 이유등 때문에 39로둔다。

그런데 黑41이 문제였다。39를 징검으로하여 黑「다」로 벌린든지 또이왕 41근처에 둘 바에는 「라」의곳까지 육박하여 白「마」를 종용한다음 黑「다」로 벌렸어야 좌변黑의진용이 이상적이라는 중론이다。

黑41이 어중간한 때문에 당장

싸움 확대一路



白42를 당하여 좌변의 양상이 달라졌다。다행히 39에서 43으로 뛴 수가 맥점。이하 51까지 받으로 머리를 내어밀었다。

수순중 黑49가 얄궂었다。생각해서는 참고도와같이 黑1로째어 3、5로 가두고 싶다。그러나 白으로부터「A」에째어 黑「B」때白「C」로 끊는수가 패감을 겸하는 까닭에 白6의 패를 黑이 감당할수가 없다。

그러나저러나 싸움은 확대일로인데 白의 다음수가 어렵다。【一凡】

◆광주

롯데	100	000	111	— 4
해태	001	011	000	— 3

▲홈런=金容哲(8회·롯데) 金準桓(3회)·梁承虎(5회·이상해태)

◆인천

삼성	000	000	000	— 0
삼미	000	052	00×	— 7

◆대전 〈8회강우콜드게임〉

MBC	041	201	340	— 15
OB	103	000	000	— 4

▲홈런=尹東均(3회·3점·OB) 李海昌(8회·2점·MBC)

張吉山 〈1750〉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0)

칠월중에 대우(大雨)가 폭주(暴注)하여 삼악은 허물어지고 도성도역시 탕진(蕩盡)하여 국망시대(國亡時代)가 될것이다. 세간도 바뀌는 타대(他代)가 나오며 우박천하(天下)하여 궁궐이 텅 비면 백성들이 마땅히 입성하여 귀히 될것이다. 이때에 백성을 돕기 위하여 사해 용왕의 딸 용녀부인이 흥운작우(興雲作雨)하여 신변(神變)이 불측(不測)이니 만사형통할 것이다. 금당개세(今當改世)하면 성인지대명전(聖人之大明殿) 신법자연성(新法自然成)이라고 원태는 적었다. 그는 문서를 사오십 부 만들어 사방 향도들을 통하여 배포하였으니, 주로 계화가 나다니면서 또는 칠성암에 찾아오는 향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소문은 은밀한 가운데 불이 번져가듯 차츰 차츰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천지개벽이 바로 눈앞에 당도했다고 술렁술렁하고 모여앉기만 하면 공연히 밤 하늘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소곤거렸다.

칠월 초 닷새 날에 칠성암에서는 먼저 입경할사람들이 모였다. 핑계는 내일모레가 칠석이라 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여환과 황회와 원향과 계화 그리고 영평서 정원태가 왔고 김시동 전성달이 정명 이원명 오계원 오경립 형제가 왔고 정호명 정만일 형제 영길이와 말립이 정대성이 왔다. 이들가운데 여환 황회 원향 김시동 이원명 정호명 정만일이 말을 오경립 정대성이 한양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었다. 김시동은 입경하여 겸계원들을 이끌게 되어 있었고, 정호명 정만일 형제와 정대성은 삼번군(三番軍)의 장정들을 지휘할 것이며, 최영길과 말립은 중궁의 지시를 받아 살주계와 공사천들의 결속을 맡고, 이원명과 오경립은 혜화문앞에서 밀려 들어올 양주 병력을 안내할 참이었다.

『스무 여드레 날에 다락원에서 모여 입경하기로 하고, 병장기와 군복은 영길이가 그 전에 거적에 싸서 종루 연골의 주인가에 장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모이지 않고 변동이 있으면 김서방(時同)과 영길이가 찾아가 전갈할것이니 거사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시오』

여환이가 일렀다. 정원태가 말하였다.

『우리 후진은 아흐레날에 영평서 모이기루 되었습니다』

『구구네…이서방(李哲)네 집인가?』

황회가 물으니 원태가 끄덕였고 황회는 말하였다.

『나두 참례해야겠군』

『병장기는 환도 뿐인가?』

정호명이 물었고 여환이 답하였다.

『짐으로 꾸려서 성내로 들어가기에는 환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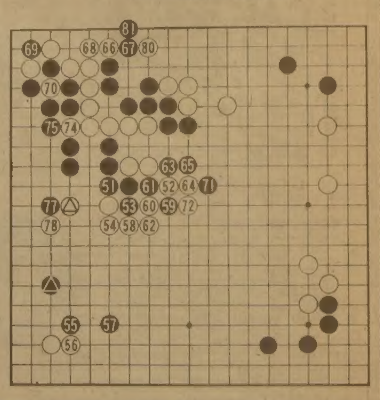
황회도 거들었다.

『성내에서 군변 일으키는데야 단병접전이 주가 될것이라, 활이다 총포다 모두 소용이 없소이다』

정만일과 정호명이 말하였다.

『우리 언니는 장창을 잘 쓰지만 까짓거 최영장군의 용력을 가졌으니 맨손으로도 금군 대여섯은 집어 던질게요. 나무 명색이 삼번병의 수문장이오, 일대(一隊)의 장인데 궁성이라면 내 손금 보듯허우. 경희궁(慶熙宮)의 담장은 인왕산 줄기를 타고 돌아서 사직골쪽에서 넘으면 아주 감쪽같지요』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4譜 51~82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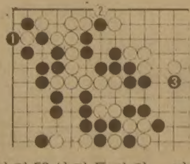
白(5段) 姜 勳〈2勝2敗〉
黑(6段) 張 秀 英〈4勝0敗〉

전보에서 黑▲표의 어중간한 수때문에 白△표로 좌변을 갈라 치면서 좌상일대가 혼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黑이 고전을 자초한 꼴이다.

黑51로 잇고 우선 중앙에 머리를 내어밀 때 白52의 임기의 호착이다. 張6단은 한번 黑53으로 막아놓더니 갑자기 黑55, 57로 좌하귀에 선착했다. 이곳을 선수하고나서 좌변을 키울생각인데 이것이 독선적이었다.

일단 黑53으로 막은 이상 거듭 58자리를 밀어야 하는것을 白에 58을 당하여 일이 맹랑하게 되었다.

黑, 고전을 自招



이제 와서 60자리에 두기도 거북해서 黑59로 붙였지만 이 순간 白60, 62로 끊는 강수가 터져 일대사건이 일어났다.

黑69의 패가 유일한 타개책이지만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떠안은채 싸워야 할것같다. 더구나 패싸움과정에서 黑81로 참고도처럼 패를 양보하고 뒷날 黑「A」의 맛을 보았어야 그제부터의 바둑이었는데 오기일변도로 버티는 바람에 입장이 갈수록 고약해진다.

73, 76, 79, 82…패。 【一凡】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주간女性 신청은 533-2361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그들이 시간을 잃을때
사람들은 생명을 잃는다

…비상시, 시간은 항상 귀중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싸이렌을 듣거나, 소방차, 병원차, 경찰차의 번쩍이는 불빛을 보았을 때, 어느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규칙에 복종해야 합니다.

◇항상 당신차를 멈춰. 가능한한 길가에 가깝게 하여 교통순환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150미터(500피트)내에 소방소에 부대한 차들을 따르지 마십시요.

당신이 절약하는 시간은 생명을 구할수 있다.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Ontario
James Snow,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10 6개월 : $55, 년 : $110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APT……………
도시……………주……………
우편번호 ☐☐☐☐☐☐ 전화……………
크레딧·카드넘버 : VISA……………매스터카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 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열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캐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페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집에서 재봉일 하실분 구함.
아주 간단한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전화 : 474-9224(낮) Markham지역.

-자개 기술자 구함 에코시 가구점
(Mother of Pearl Technician)
-Abalone Shell Insetter
Antique Chest for Korean.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Mrs.김

조그만 가게 맡아서 하실 분 구함.
전화 : 466-9864 Mr. 리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유경험자, 당일 페이.
전화 : 466-9864. Mr. 리

Store 경험있는 여자 Cashier 급구함.
전화 : 532-9638
(저녁 9시 이후 전화 요망).

도넛숍에서 밤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끝.
전화 : 282-0634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학생 Part Time Store 헬퍼구함.
(Kipling & Albion 지역) 오후부터 시작.
전화 : 741-7692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매 매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특별 Dieter's Tea 판매중.
중국처방 화공약품 가미안한 자연톡차.
전화 : 656-8080 (체중감량 즉효)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시간짧과 이윤 좋은 가게 급매.
주매상 $3,200, 리스 4년, Rent $500.
가격 : 2만8천불. 전화 : 654-4709

큰 몰안에 있는 선물센타(Gift Shop)급매.
리스 1992년까지, 여자 혼자 운영가능.
전화 : 633-7479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멀안에 있는 Naturalfood No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멀.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멀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드라이크리너(Depot) 픽업스토어.
또는 Shoe Repair 팝니다.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4327.

위치좋고 Parking 장소 넓은
Driving Hamberger Place 팝니다.
주매상 $6,000. 렌트 $2,300.
리스 1990 + 5년옵숀. Asking $16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Mrs. 우.

번화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섬마린 빵가게 급매.
(1)가족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규모. (2)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매상. (3)월 이익금 5,000불 이상 보장. (4)양도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및 운영의 편의제공. 사업관계로 좋은 조건에 양도코자 함. 전화 : (604)875-8623, 밤 872-5593.
주소 : 1063 Davie St. Vancouver B.C. V6E 1M5 (Mr. Kim)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전망 좋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세일.
새로 셋압한 스토아임.
40스토아중 5스토아 오픈된 컴플렉스 몰에 위치.
(Yonge & Orchard Heights Blvd. in Aurora)
스토아를 새로 셋압하시고 싶은 분께 최적함.
전화 : 742-0412. 1-727-5902

Tuck Shop 팝니다.(오크빌지역)
연매상 17만불. 권리금 $2만9천 + 스탁.
전화 : 844-5719(오전 10:30이전, 또는 오후8시이후)

New Plaza(Yonge & North HWY 7)에 위치하고 있는 콘비니언스 스토아 급매. Asking $2만5천 + Stock.
전화 : 492-9031, Mr. Tam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 $5,000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베드룸. 전화 : 781-7080

---

(1) 레스토랑 팔거나 또는 렌트함.
(2) 스토아 렌트. 좋은 사업전망.
St. Clair & Keele 전화:532-8227. George.

Variety & Convenience Store 급매.
새 프라자안에 있음. 좋은 사업임.
(Located next to Swiss Chalet & Canadian Tire).
9625 Yonge ST.(at Yonge & Weldrick). 전화 : 884-5785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그로서리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 + Lotto. 주매상 $1만1천 + $1,300(Lotto). Asking $9만 + 스탁(현찰8만불).
No meat, no delivery. 1-514-364-4627 Mr.송

Gift Store 급매.
Bloor & Bathurst 지역.
전화 : 536-6590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후렌차이스 스토아 급매.
주매상 $7,500. 권리금 $19,500+스탁.
캐쉬원함. 전화 : 223-474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실 내 장 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챠챠,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3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 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리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발행 2주년기념

언제나 앞서가는 기사, 광고의 토론토 한국일보

실협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EST, TORONTO M6G 1K8
Phone: 533-7923 4 / Hot Line 533-8344

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옵기 이에 공고합니다.

일 시: 1983년 6월9일 오후7시
장 소: DOWNTOWN HOLIDAY INN
COMONWEALTH ROOM 2층)
89 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발기인:

강경하 강기원 강대영 강문원 강수호 강춘남 강창흠 고정배 구철회 권광수 김강선 김경애 김관영 김광철 김구명 김근철 김남원 김덕용 김명정 김병선 김봉근 김상달 김상철 김석철 김선영 김소일

김신철 김연오 김영곤 김영권 김영대 김영무 김영상 김영진 김영환 김용규 김용기 김용준 김은하 김웅하 김재온 김정식 김정치 김종열 김중철 김철수 김충헌 김태진 김풍수 김헌덕 김현승 김형호

김희삼 나상선 만양정 문옥섭 박광철 박경덕 박경택 박규동 박기창 박남희 박영우 박찬도 박천봉 박태조 박희영 방익석 배기옥 배기웅 배경락 배용빈 변경용 변일용 변의섭

서광철 서동준 서동헌 서민석 서정길 서준경 성상근 소수자 손병헌 송기선 송완일 송영집 송재규 송종남 신장휴 신화성 심태섭 안규정 안기정 안 덕 양혜룡 엄기성 엄동환

여문석 우인도 우희두 원일재 원종필 유만춘 유석주 유승현 유영갑(R) 유영갑(Y) 유인석 유종철 윤재용 이건영 이경선 이국영 이기대 이기섭 이기훈 이동환 이민식 이범재 이병권

이상봉 이상철 이성우 이성호 이승수 이승우 이양주 이영민 이용규 이 윤 이인용 이장세 이정구 이재영 이종원 이주태 이주택 이준영 이진효 이춘수 이학현 이한근 이형택

이홍규 이 휘 임승철 임의상 임철원 장가진 장순채 장재식 장재춘 장정애 장추국 장흥원 전기석 전석규 전윤식 정상우 정승은 정원영 정인필 정태호 정희철 조가연 조남용

조영덕 조용규 조한권 주창균 진현철 차선경 차선철 차선행 천성열 천용기

최기주 최남축 최대덕 최동주 최무원 최복기 최봉식 최상수 최상철 최영길

최영식 최우현 최원보 최장복 최종국 최종원 최태식 최호영 한광명 한용식

한천석 한행일 함금상 함덕상 함의현 함태산 함효상 허재영 허종수 허충식

현영일 홍건선 홍사렵 홍창성 홍한기 황규택 황인주 황재필

발기인 신청서

협동조합
발기준비위원장 귀하

성 명
회원번호

상기 본인은 가칭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협동조합 발족에 적극 찬동하여 발기인 총회의 발기인은 물론 주주로서 참여하기를 원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단, 정관 확정여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198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절 취 선) —

★상기신청서를 절취하여 협회로 우송 바랍니다.

O.K.B.A.
627A BLOOR ST. WEST, TORONTO M6G 1K8
Phone: 533-7923 4 / Hot Line 533-8344

★협동조합설립에 찬동하여 발기인으로써 참여하시고저 하는 회원은 협회사무실, 임원, 또는 이사진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회원의 명단은 발기인으로써 매주 신문지상에 발표됩니다.

★이상의 발기인 명단은 5월25일 현재 협동조합설립에 적극 찬동하여 자진신청하였거나 임원진 및 이사진에 의하여 추천된 분입니다.
★당일 임시총회의 정관심의 통과직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협동조합 발기준비위원회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영업안내

대출업무	당좌대월 / 개인사업자금대출 / 기업사업자금대출 / 직금대출 및 / 적금담보대출 / 무역금융
예금업무	정기예금 (Term Deposit) /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 정기적금 (Installment Saving Account)
수출입업무	신용장 개설 · 상업어음추심 / 수출화환어음매입 ·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송금업무	우편송금 (Mail Transfer) /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Suite 6960 1 First Canadian Place
Toronto, Ontario M5X 1C9
(416) 865-0456

목돈마련의지름길 한일은행 카네이션 정기적금

카나다 韓一銀行
HANIL BANK CANADA

●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 Toronto Main Branch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416) 865-0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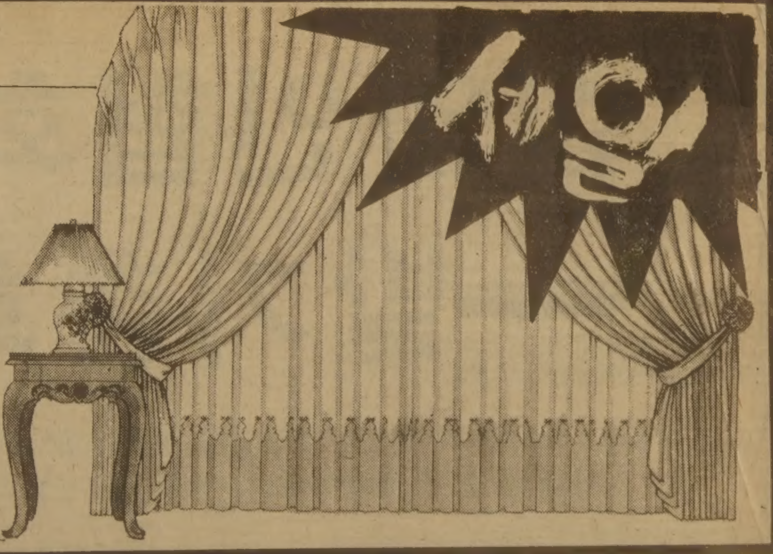
여름철 특별대매출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럭키드래프리에서는 개업2주년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께 특별 염가봉사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튼은 어떻게, 어떤 수를, 어느 색깔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수 있고 없고가 주된 목적입니다. 자신있게 색상 조화를 해드리겠으며, 양심과 성의로써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럭키·드레프리 대표 최원보 올림

4141 DIXIE RD.
MISSI. ONT. L4W 1V5
625-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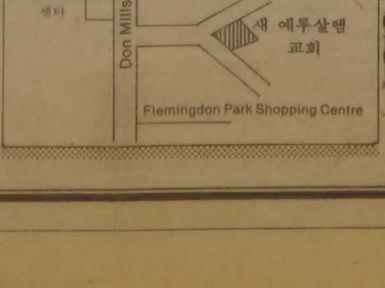


부흥성회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갱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 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3